

# 그림책과 돌봄

김지은(아동청소년문학 평론가. 서울예대)

- 개구리와 두꺼비는 친구(1970)
- 개구리와 두꺼비가 함께(1972)
- 개구리와 두꺼비의 사계절(1976)
- 개구리와 두꺼비의 매일매일(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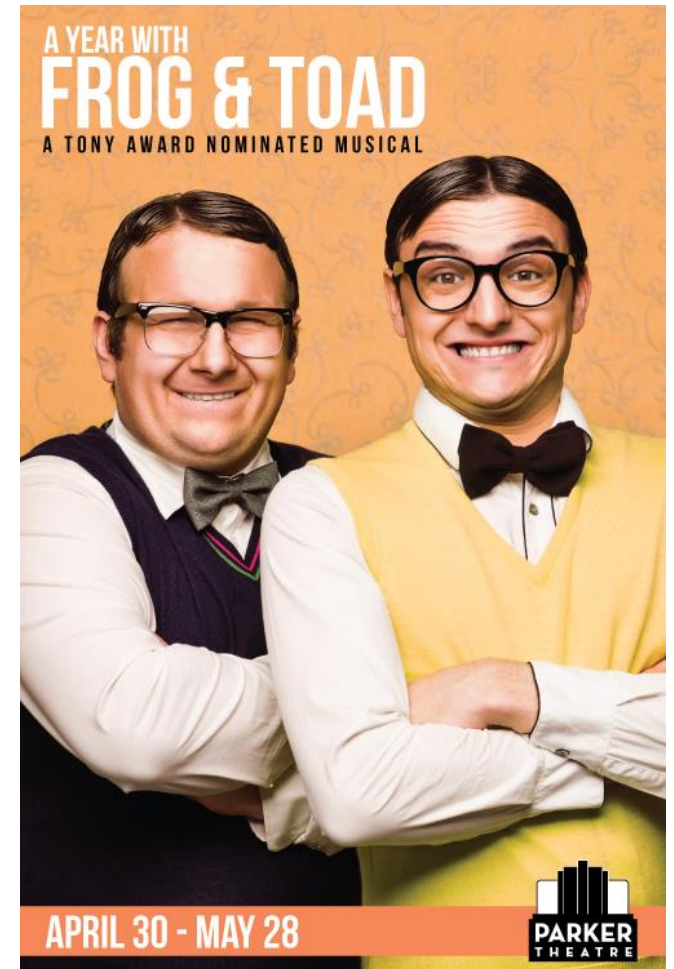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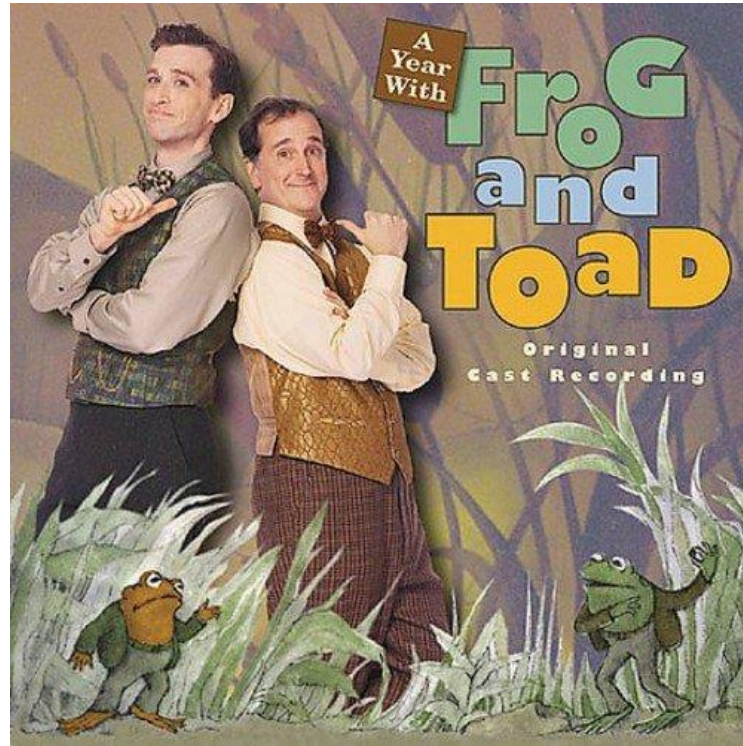
개구리와 두꺼비는 친구

(1971년 칼데콧 명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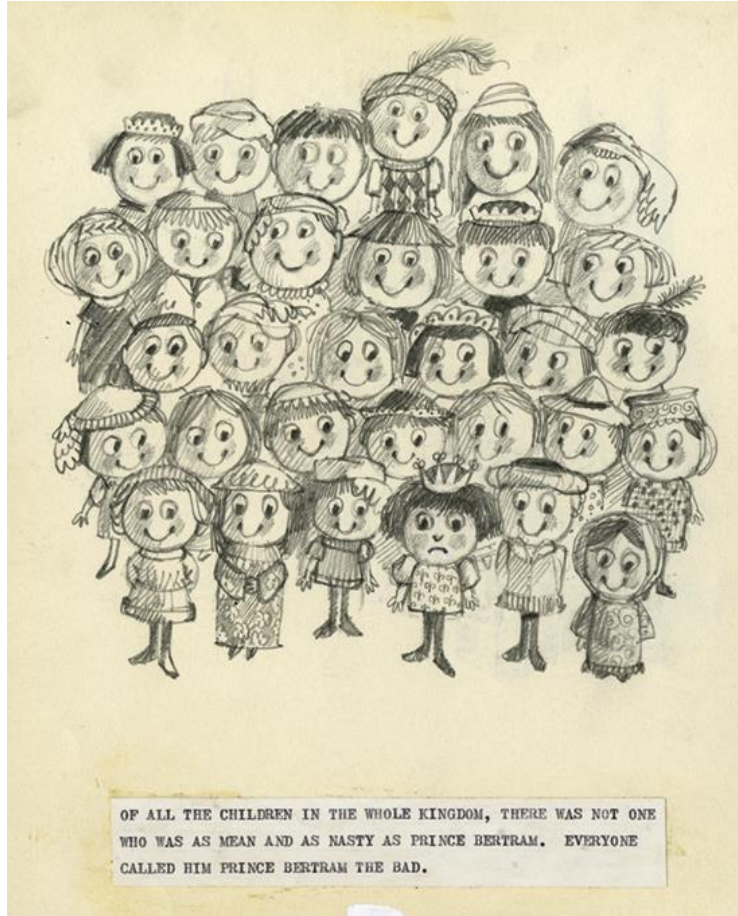
개구리와 두꺼비는 함께

(1973년 뉴베리 명예상)





1962 Prince Bertram the Bad-----1964 Red Fox and His Canoe-----1968 Hansel and Gre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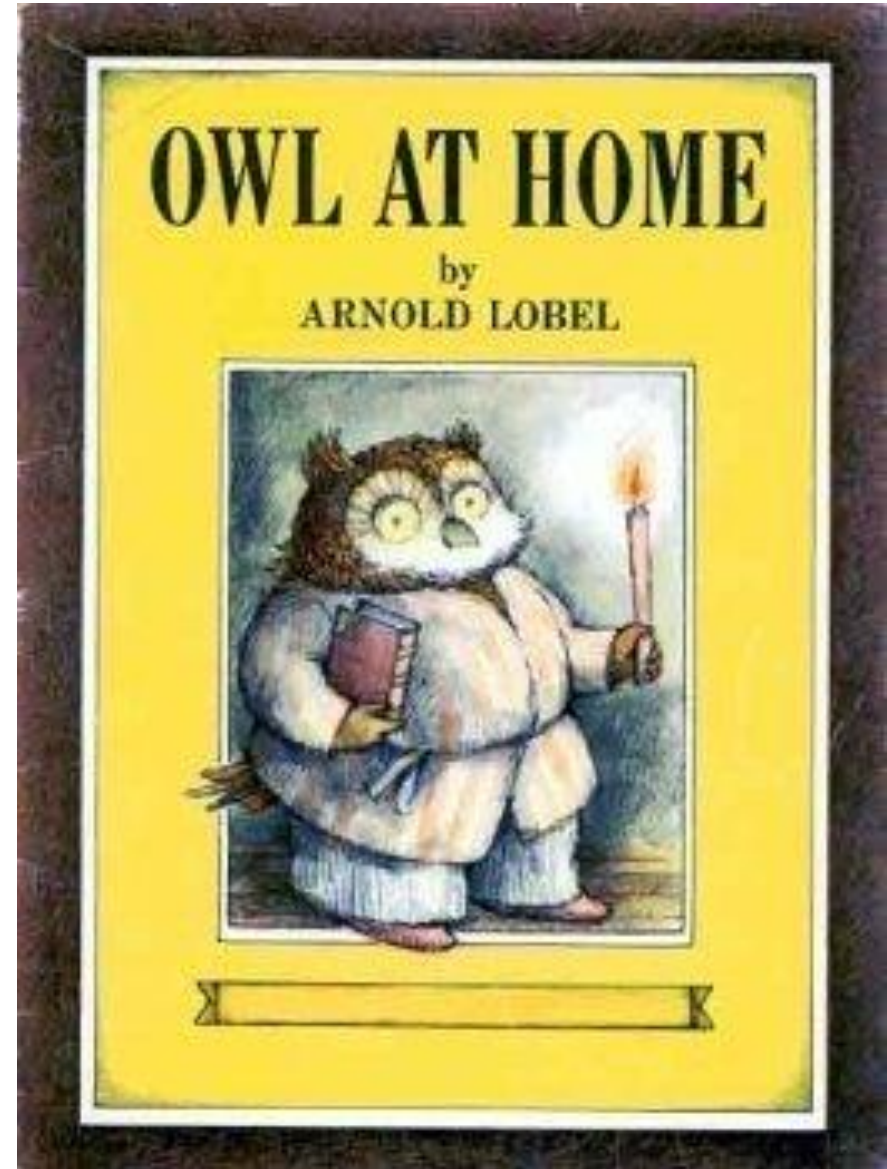
# 1977년 아동문학저널 <사자와 유니콘> 인터뷰



Work and Children's Literature

"불행한 연애를 했던  
어떤 어른은  
그것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  
어린이가 읽을 수 있는 작품으로  
승화시켜서 쓰고 있을 따름이죠."







Owl began to cry.

A large tear  
rolled down  
and dropped  
into the kett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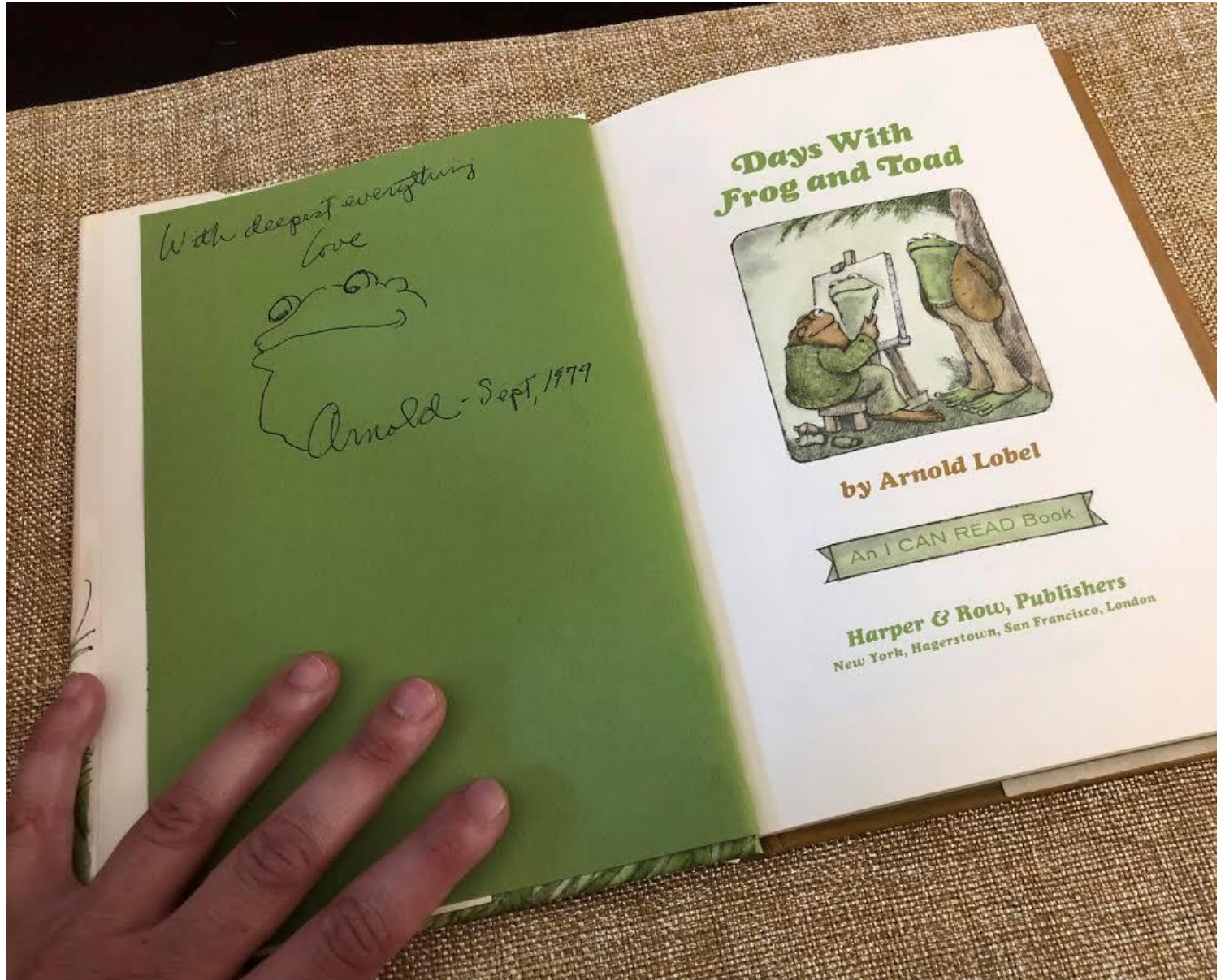
“Spoons that have fallen  
behind the stove  
and are never seen again,”  
said Ow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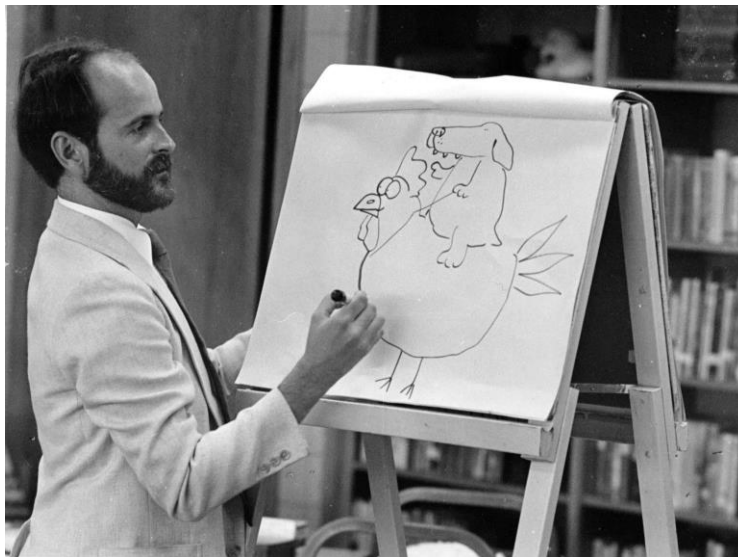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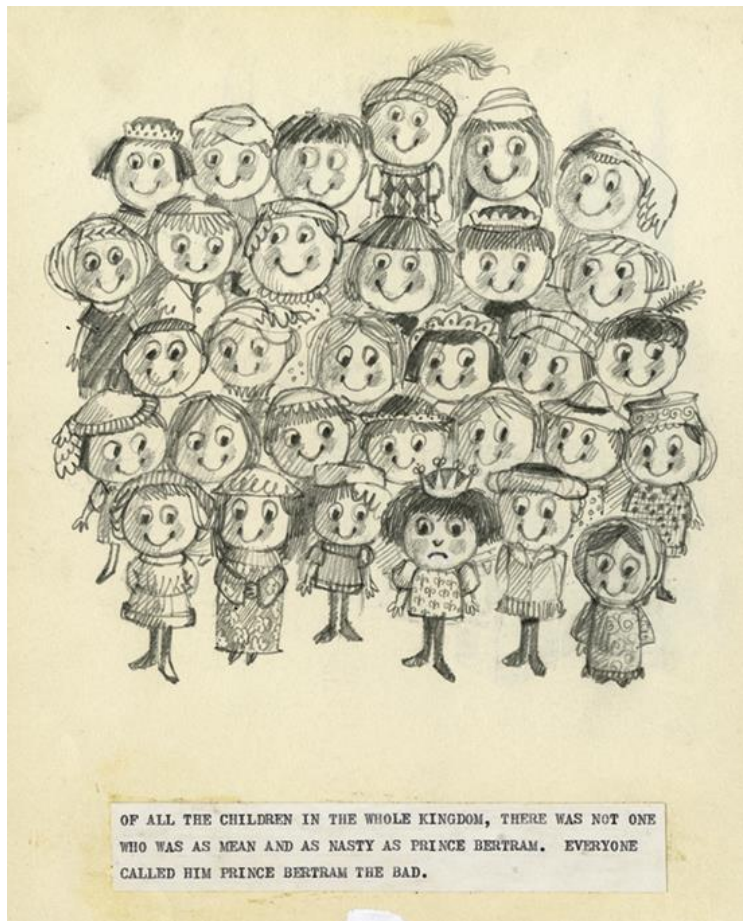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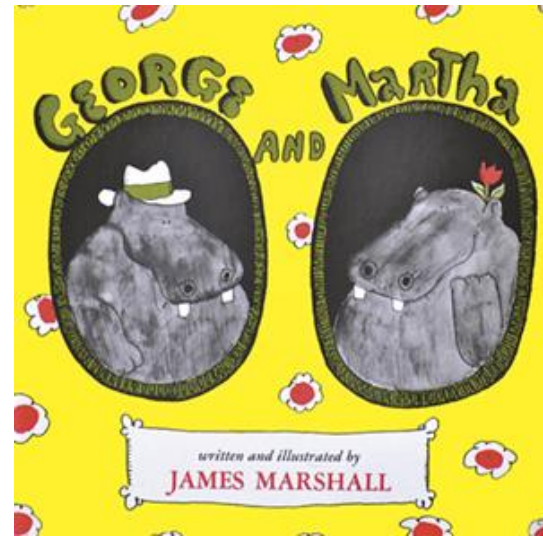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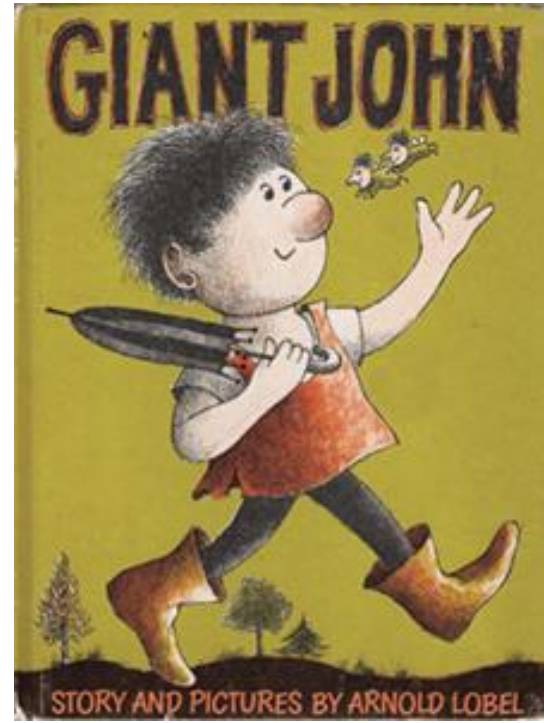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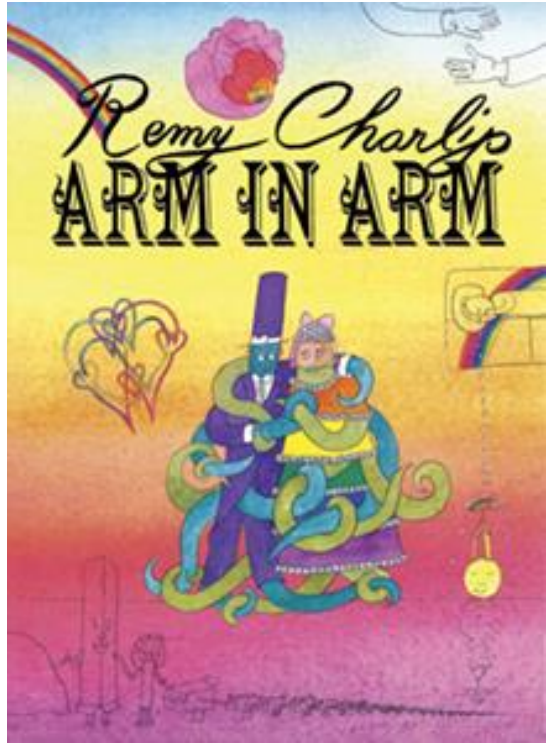
“개구리든 두꺼비든 하마든 인간이든,  
당신은 당신이 먼저 완전히,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다운 존재가 되어야만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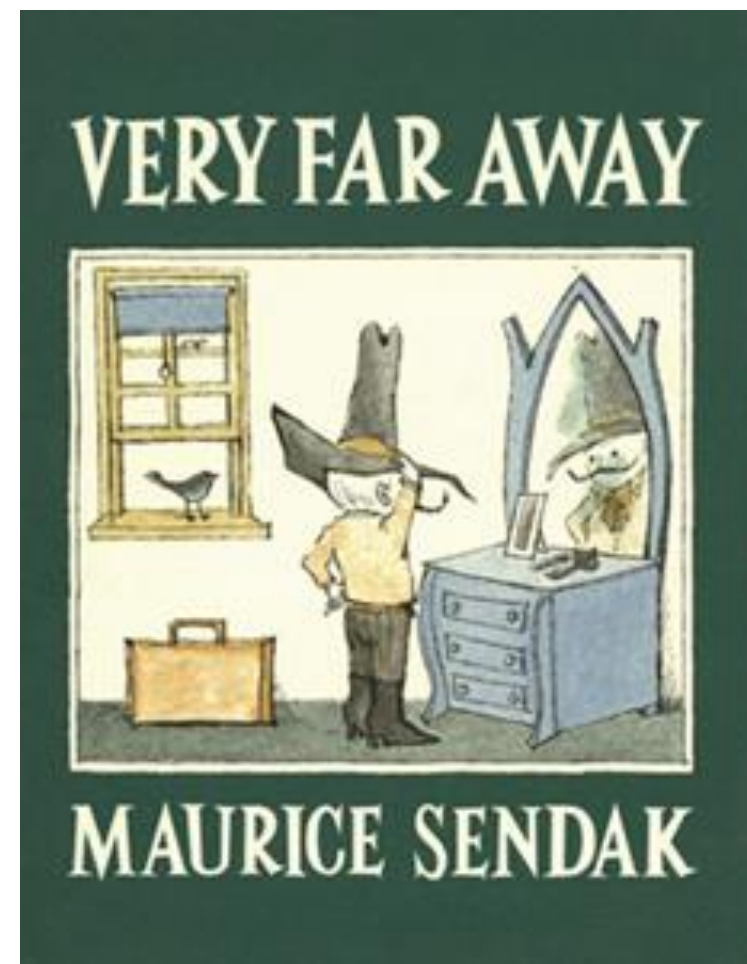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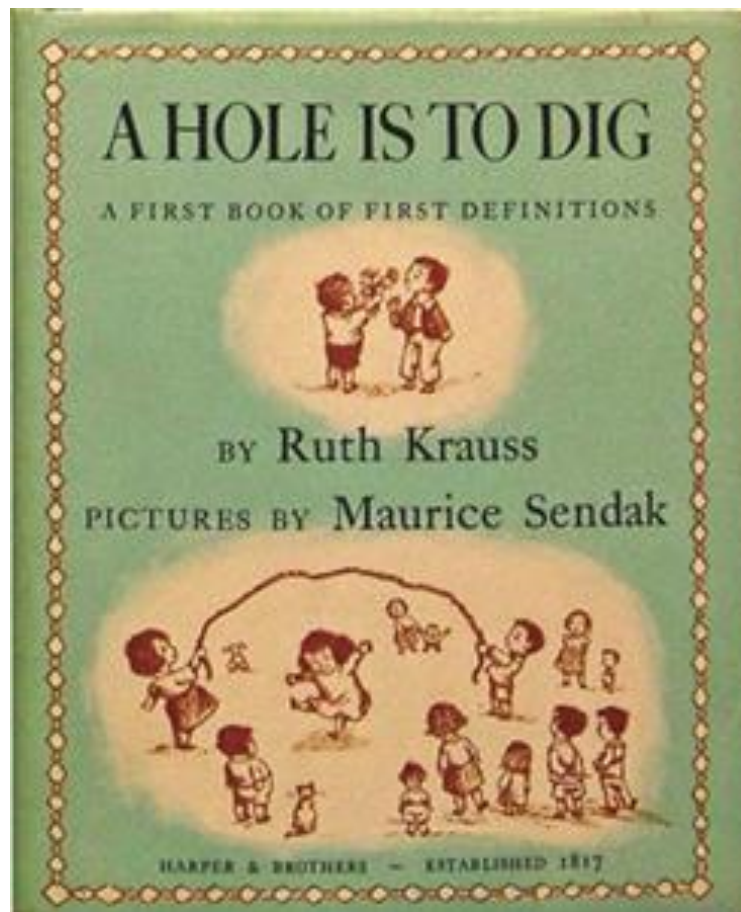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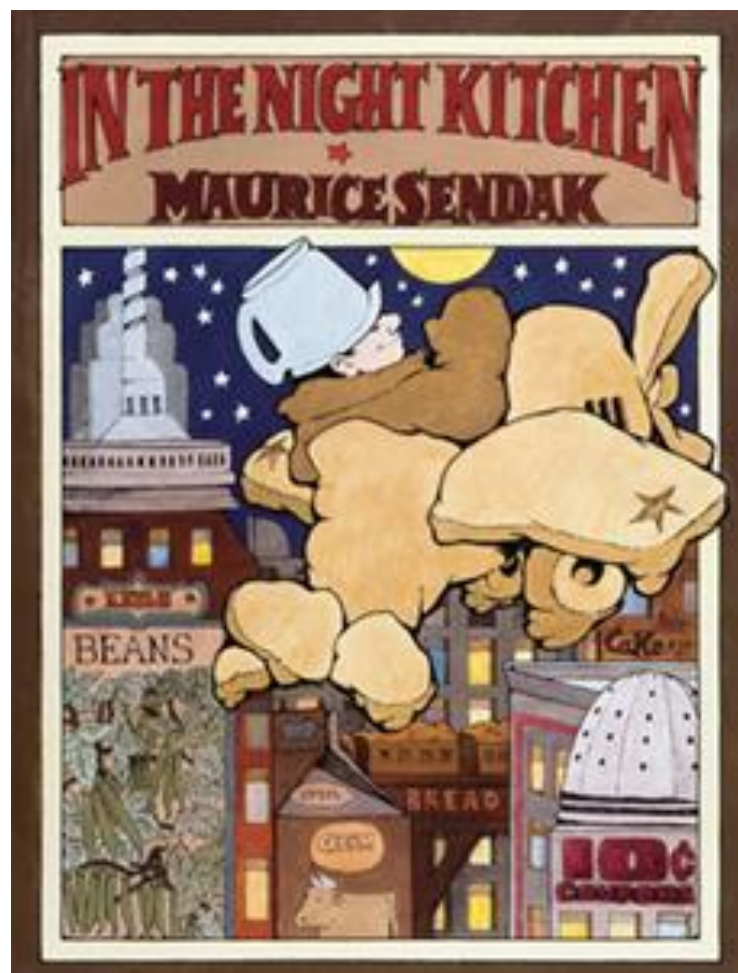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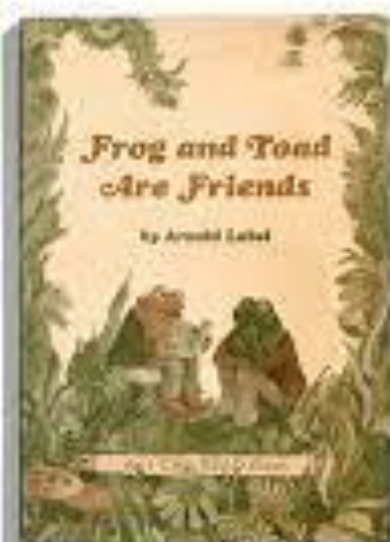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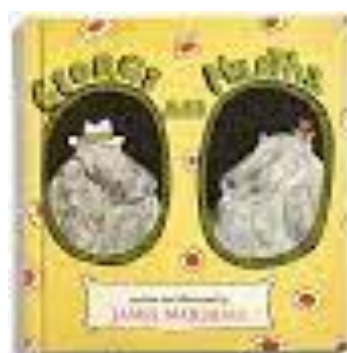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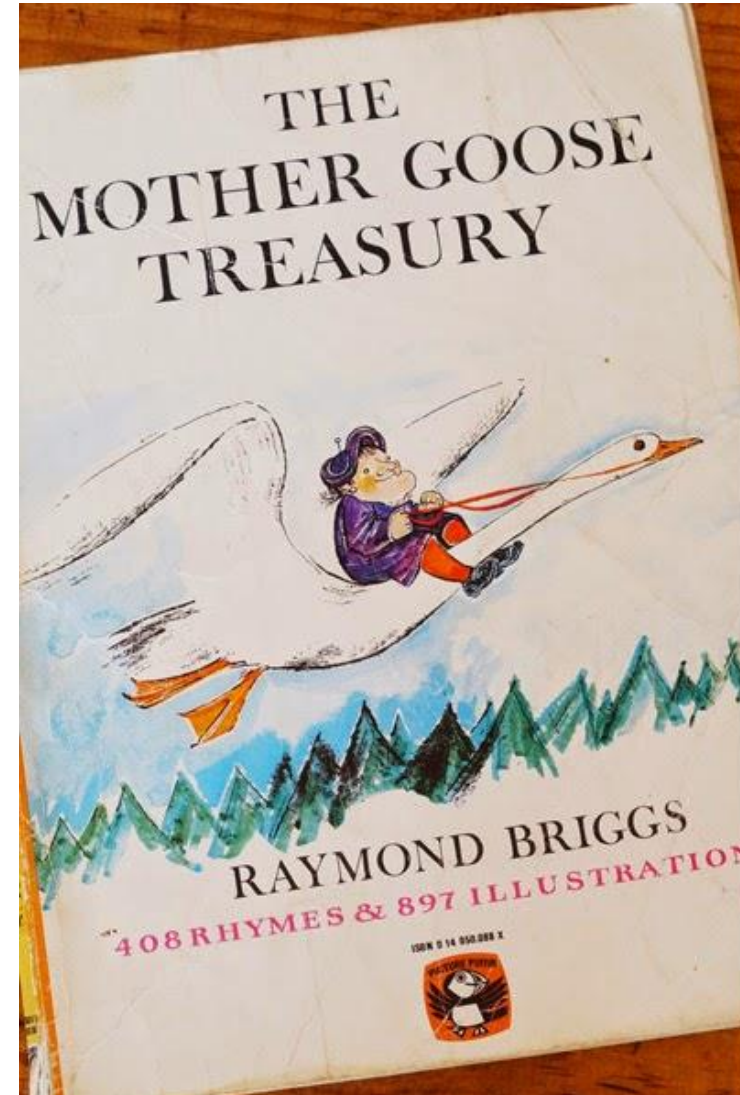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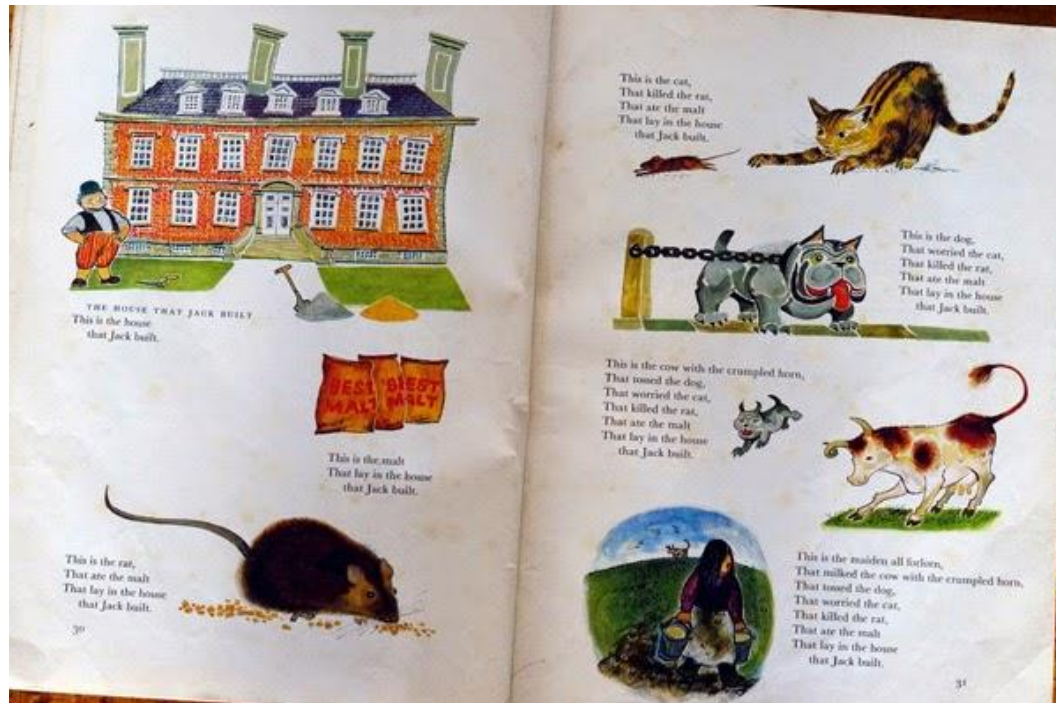




레이먼드 브릭스

# <The Mother Goose Treasury> (1966)

케이트 그리너웨이상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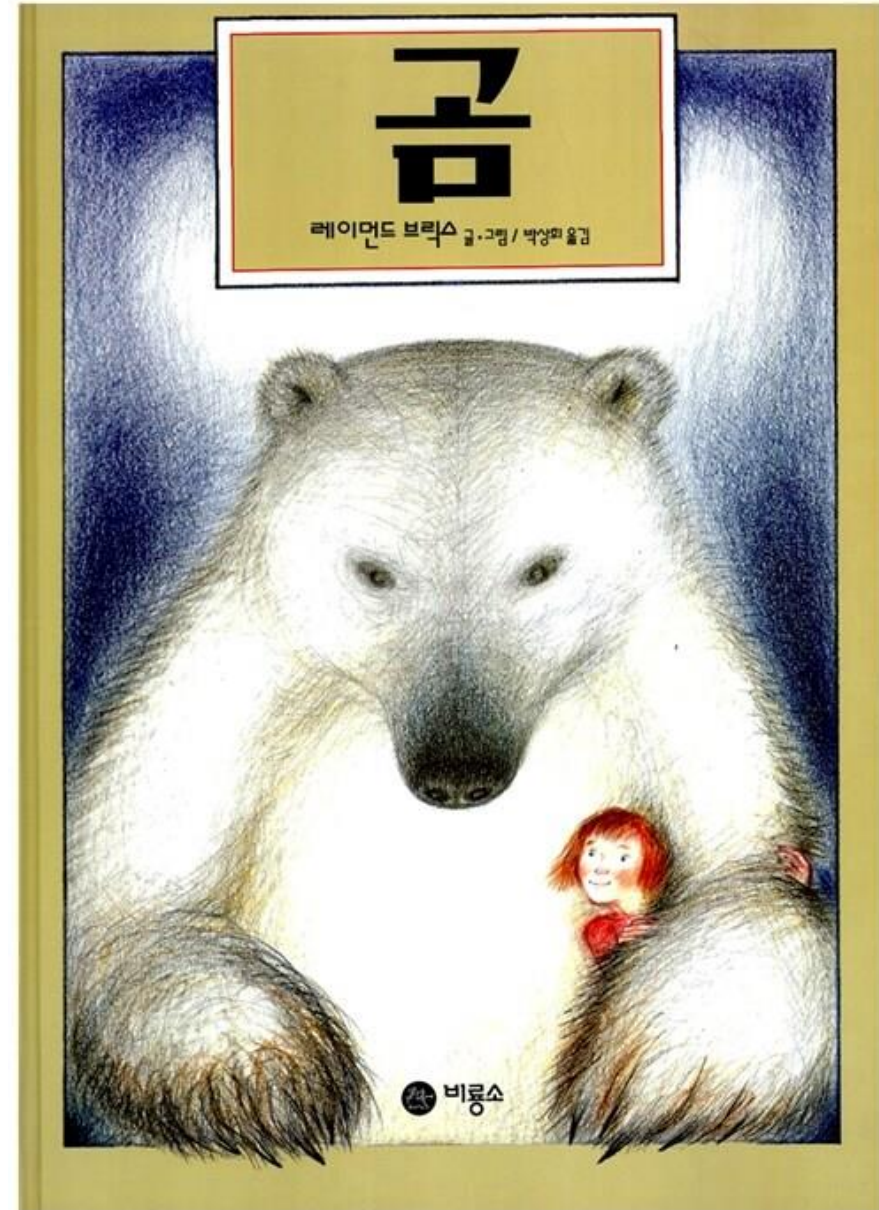
레이먼드 브릭스

<곰>(1994)

비룡소 그림동화 시리즈 1권



Fungus the Bogeyman (1977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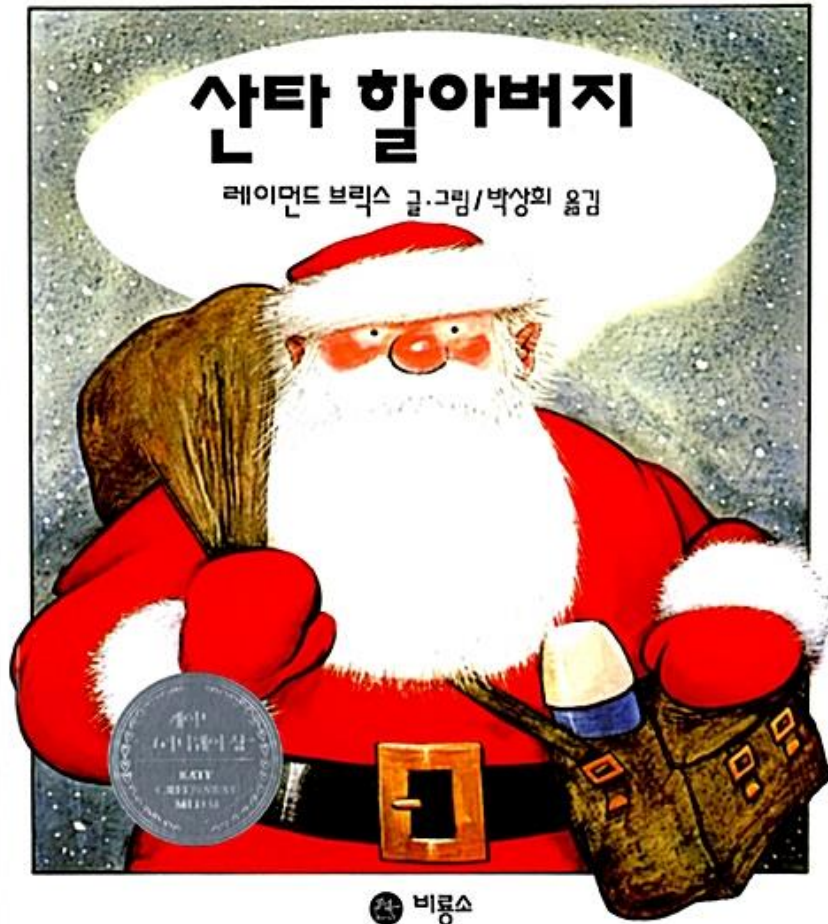




“제 작품에는 해피엔딩이 없습니다 . 나는 자연스럽고 불가피해 보이는 것을 창조합니다. 눈사람이 녹고, 부모님이 죽고, 동물이 죽고, 꽃이 죽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울하게 쓰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삶의 진실입니다.”

“그는 짓궂은 농담을 좋아했는데 주로 그 농담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우리 모두는 레이먼드 브릭스의 불손한 유머 감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흠집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가디언은 레이먼드 브릭스를 일컬어 일상적인 상상을 허물어뜨리는 국보라고 불렀습니다.”

## <산타 할아버지>[1973] <산타 할아버지의 휴가>[1975]





“우리는 그의 책을 펴고 장면을 넘길 때마다 놀라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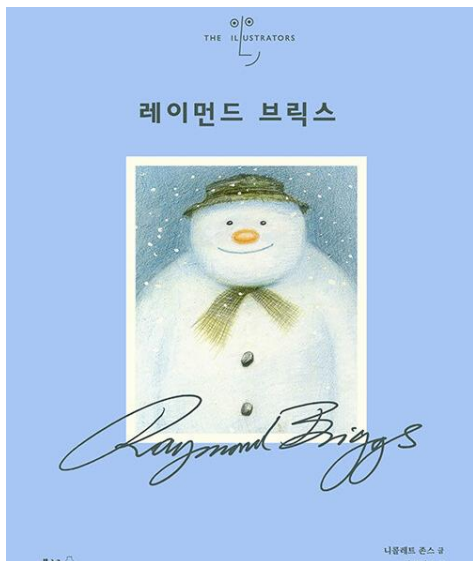
레이먼드 브릭스는 유쾌하게 멈출 줄 아는 작가입니다.

작품 속의 대화는 완벽합니다.

어린이와 어른, 어린이와 꿈 사이에 벌어지는 드라마와 유머는  
상상과 현실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던집니다.

그래픽 노블의 형식을 띤 그의 작품은 출간 당시부터  
획기적이었고

지금까지도 창조성과 작품의 통일적 아름다움이라는 면에서  
가장 선두에 서 있습니다.” (피닉스 상 심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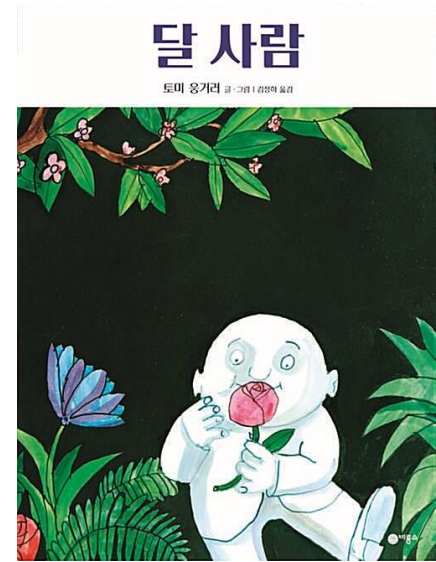
브라이튼 예술학교 선생님이로 25년 동안 재직.

그의 제자 크리스 리들은 케이트 그리너웨이상 3회 수상자.

## 토미 움게러/ 예술가의 사회적 참여 **Tomi Ungerer**

“나는 어른이 되어서도 늘 어린이를  
존경했다.”

1998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  
2003년 에리히 케스트너 상,  
1992년 독일 연방공화국 공로 훈장,  
2000년 유럽연합의회 어린이-교육 대사  
임명  
2002년 프랑스 레지옹 도뇌르 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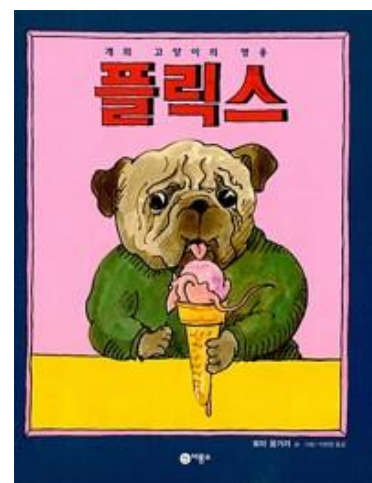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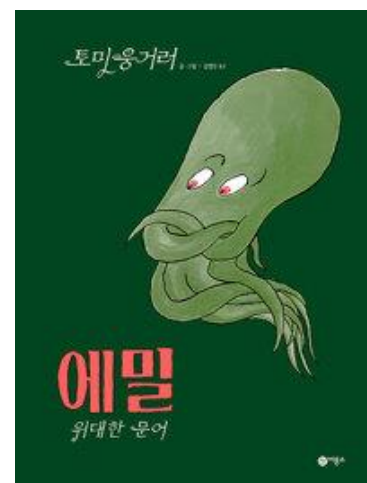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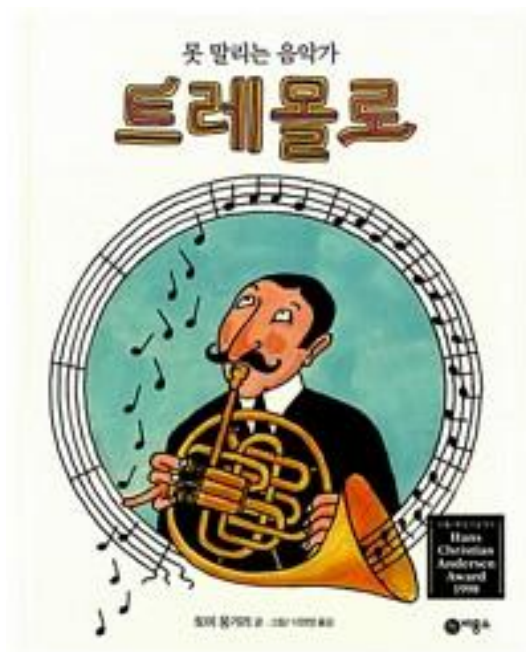


곰인형 **오토**

토미 움게러 글·그림/서현영 옮김

비룡소

# 위대한 존재는 누구인가? 영웅에 대한 질문



“토미 웅게러의 목표는 세계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프랑스 알자스에서 태어났으며 북극까지 히치하이킹을 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낙타 운전사로 일했으며 아이슬란드 어선에 탑승하기도 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캐나다와 아일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는 어린이들이 자주 관심을 갖는 거대한 철학적 질문에 간결하면서도 예리하게 답변합니다.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며 그 문제를 어린이의 시선으로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자유롭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모토입니다. 그는 알자스 지역에 자신의 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의 나뭇잎과 나뭇가지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죽은 친구의 모자를 즐겨 썼으며 목에는 연분홍 스카프를 감고 다녔습니다. 세 번의 심장마비를 겪고 살아남았고 일생동안 에이즈 퇴치, 동물권, 전쟁 반대와 평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 꼬마 구름 파랑이



토미 웅게러 그림  
출판사: 에듀넷



© picture-alliance/Rolf Haid

두려움과  
불안은 어떻게  
다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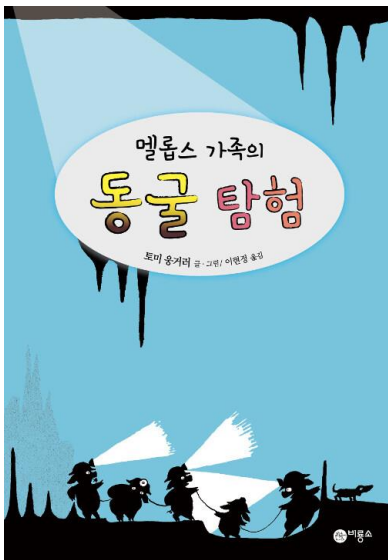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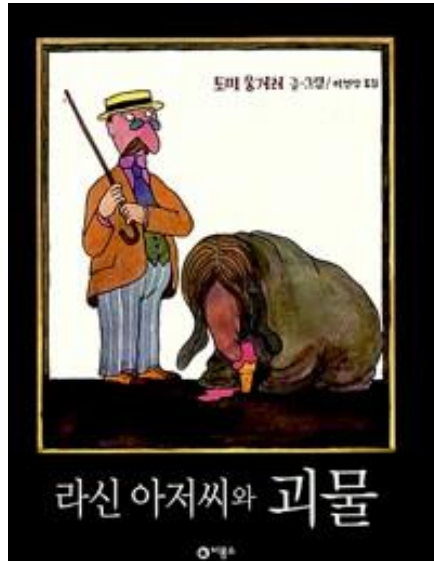
모험심이 많고 지혜로운 돼지 가족의 이야기 '멜롭스 시리즈'  
어른들은 무서워하는 표지, '제랄다와 거인'

"저는 어린이가 인생의 어려움에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겁을 주는 일을 별로 꺼리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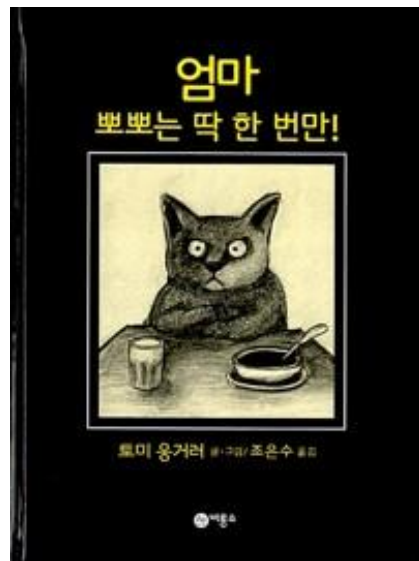
"내 동화책에는 대부분 공포의 요소가 있습니다. 내 책에 나오는 어린이들은 결코 겁을 내지 않아요. 저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어른들이 많은 시간 동안 어린이에게 심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제 책 속의 인물들은 항상 농담을 해요. 제가 어릴 때 무서운 상황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무서워하는 것, 두려움과 불안은 또 다른 것입니다. 전투에 참여하는 중인데 폭탄, 총알, 파편이 날아다니고 있다면 어떨까요. 무섭고, 겁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것과 불안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불안은 어떤 면에서 훨씬 더 깊은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당신에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 더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언제나 매우 가까이 있는 위협입니다. 저는 두려움보다 불안이 우리에게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가 들이닥치고 나서 3개월이 지나자 프랑스어는 한 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었습니다. 봉쥬르라고 하면 바로 체포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3개월 만에 독일을 배워야 했는데요. 목에 칼이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에게 3개월 안에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했던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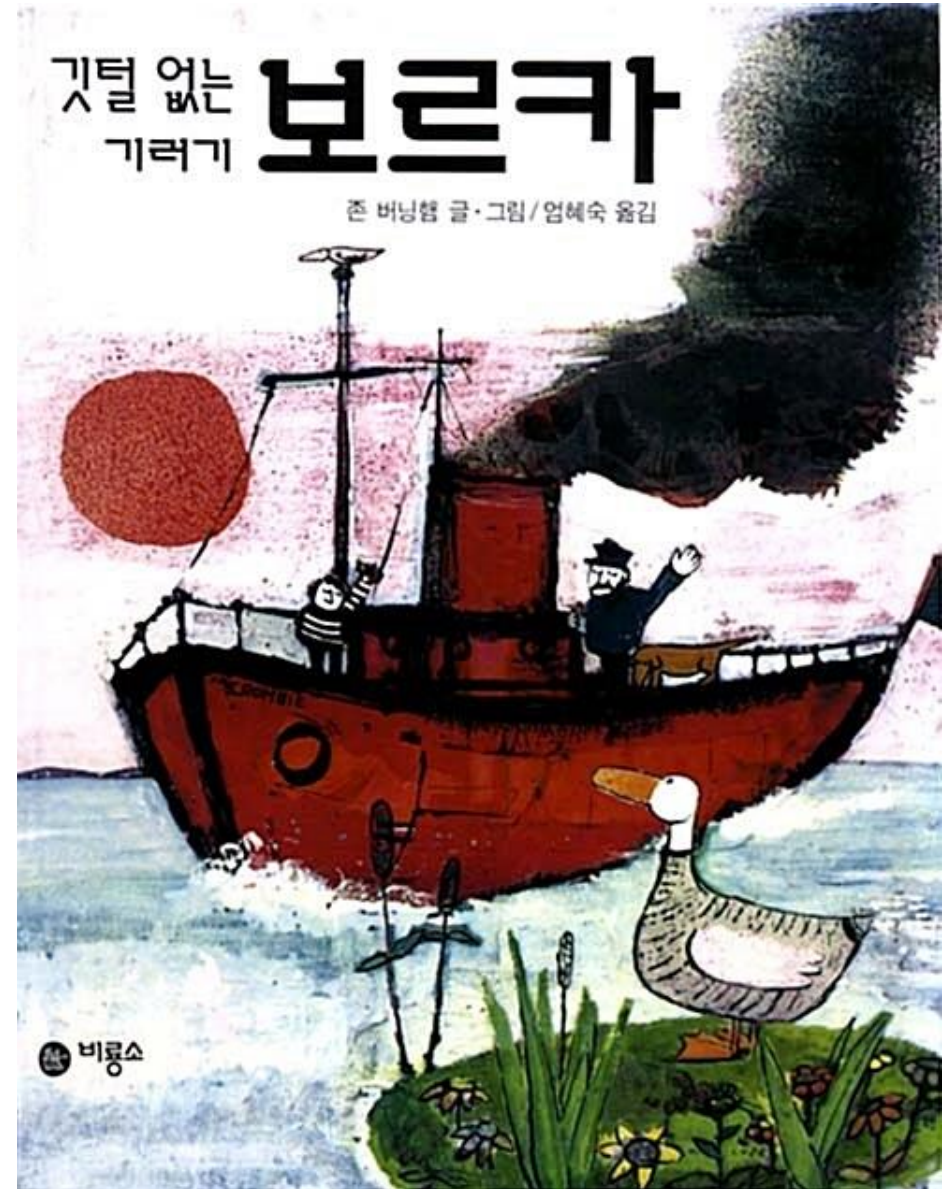
" '엄마, 뽀뽀하지 마세요!' 이 말은 토미 웅게러가 엄마에게 늘 했던 말입니다. 그는 약간 흐릿한, 탁월한 연필 드로잉으로 고양이 가족의 집 안에 있는 쥐 다지기 기계 같은 무시무시한 물건들을 그려 두었습니다. 작품의 주인공인 고양이의 사나운 표정은 도전적인 어린이들에게 친숙하게 느껴졌고 이 책은 어른들의 걱정과 달리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존 버닝햄

**John Burningham**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1963]

“어린이를 위한 책을 쓰는  
일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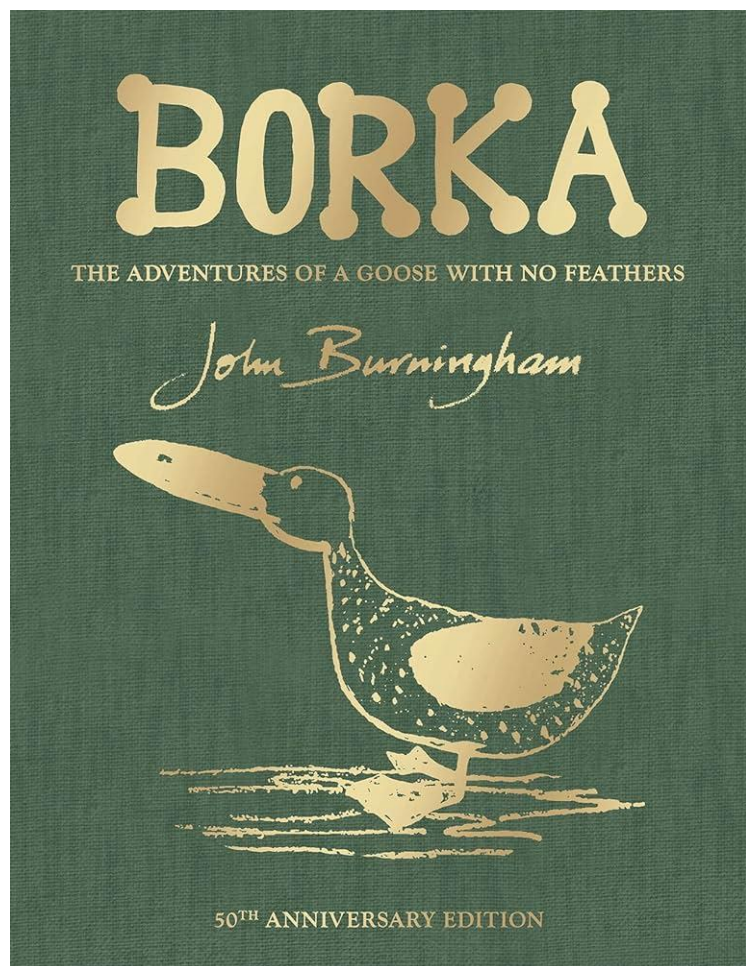
**Helen Oxenbury and John Burningham win top books honour**

**Alison Flood**

“어린이는 누가 자기 편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부족할 뿐입니다.”

“그림책 작가들이 ‘이건 아이들을 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핑크색 케이크를 그리거나, 여러 반복되는 패턴을 그려넣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할 거야!”라거나 “~처럼”이라는 말들을 그들은 지루하게 여깁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마 거들떠보지도 않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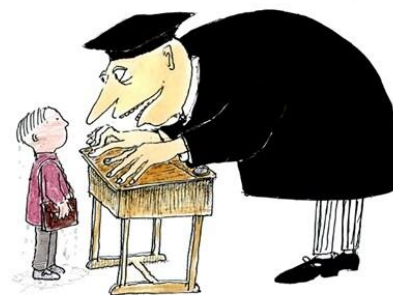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로 만들어진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



# 명령문에 대한 반문 또는 실험

지각대장 존

존 버닝햄 글 · 그림 / 박상희 옮김



비룡소

에드워드도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



존 버닝햄 지음 / 조세현 옮김

비룡소

셜리야, 목욕은 이제 그만!

존 버닝햄 글 · 그림 / 최리울 옮김



비룡소

셜리야, 물가에 가지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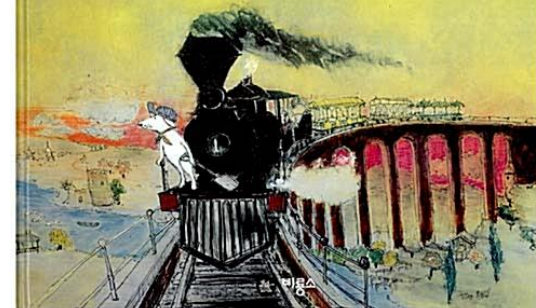
존 버닝햄 글 · 그림 / 이상희 옮김



비룡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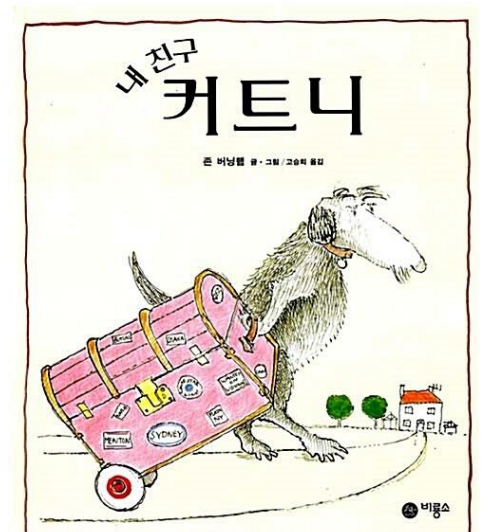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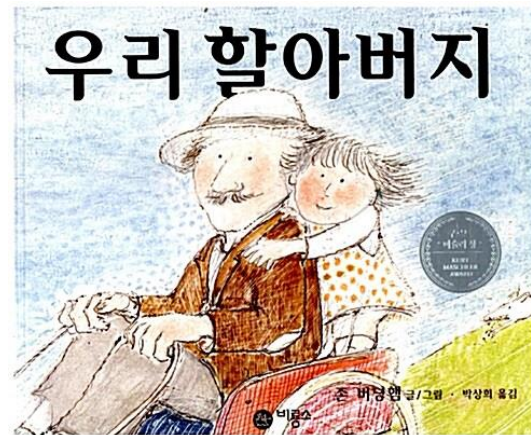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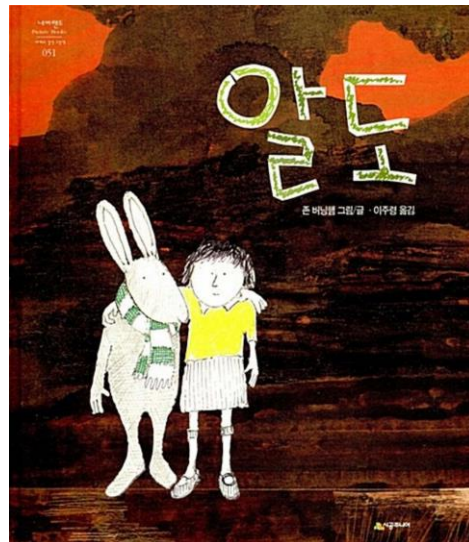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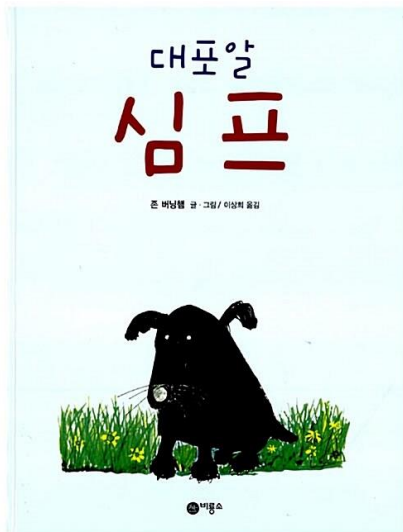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존 버닝햄 글 · 그림 / 박상희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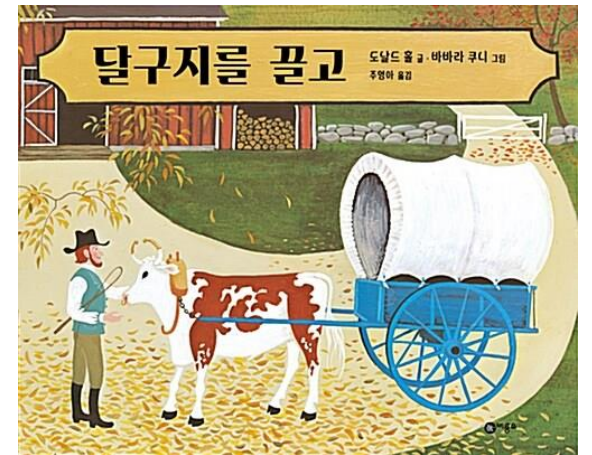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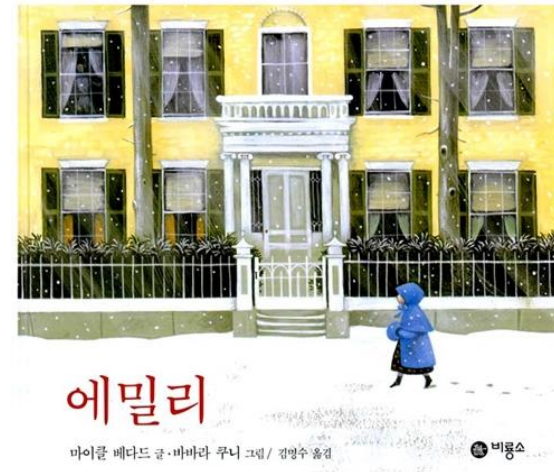


비룡소

#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 친구, 가족, 우정의 의미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바바라 쿠니  
덕분입니다.



# World More Beautiful

*The Life and Art of* Barbara Cooney

*angela burke kunkel & becca stadla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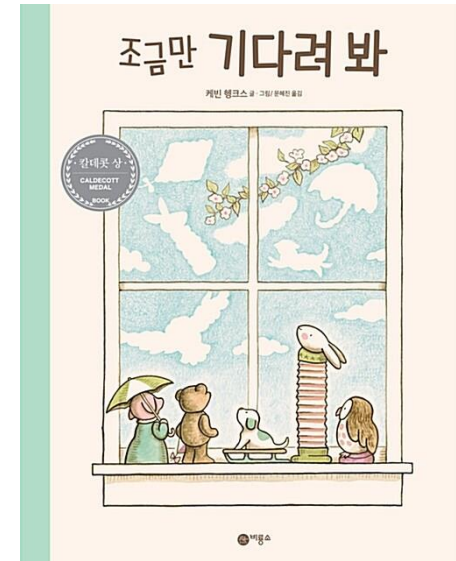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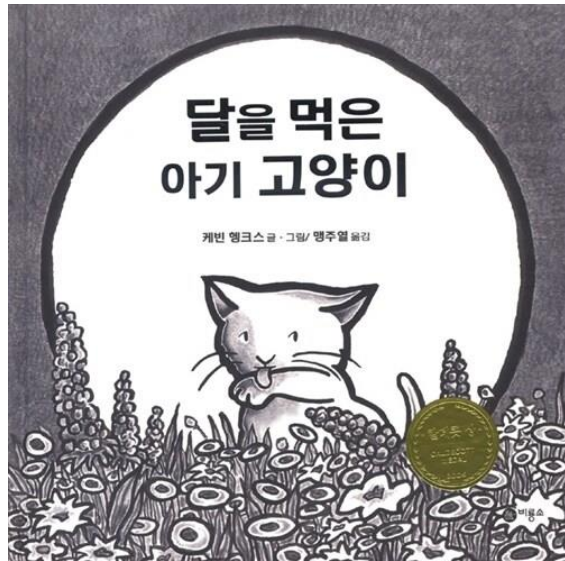
The men in Barbara's family understood numbers, and ships,  
and money. Her father studies the stock market, numbers  
tickling steadily away in black and white.  
But Barbara and her mother love art, and color, and l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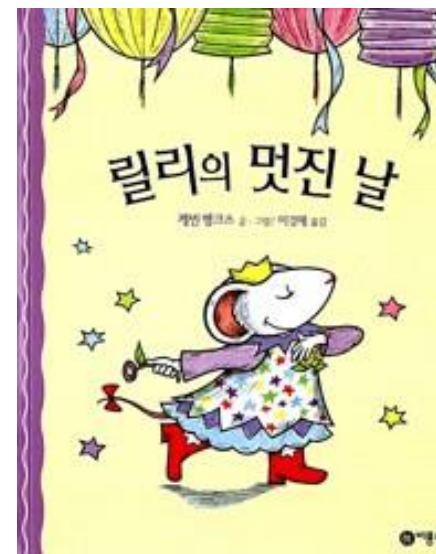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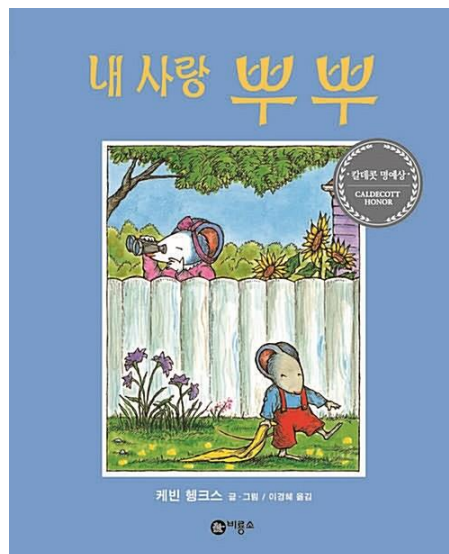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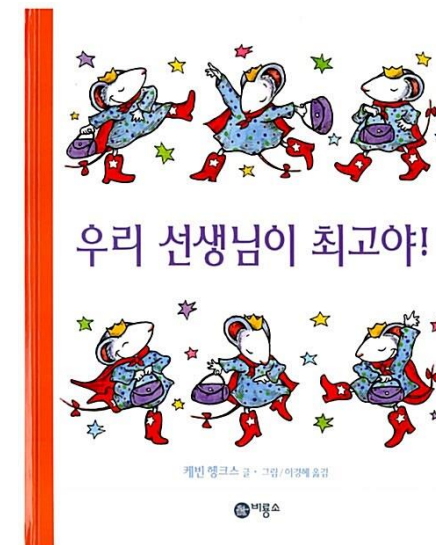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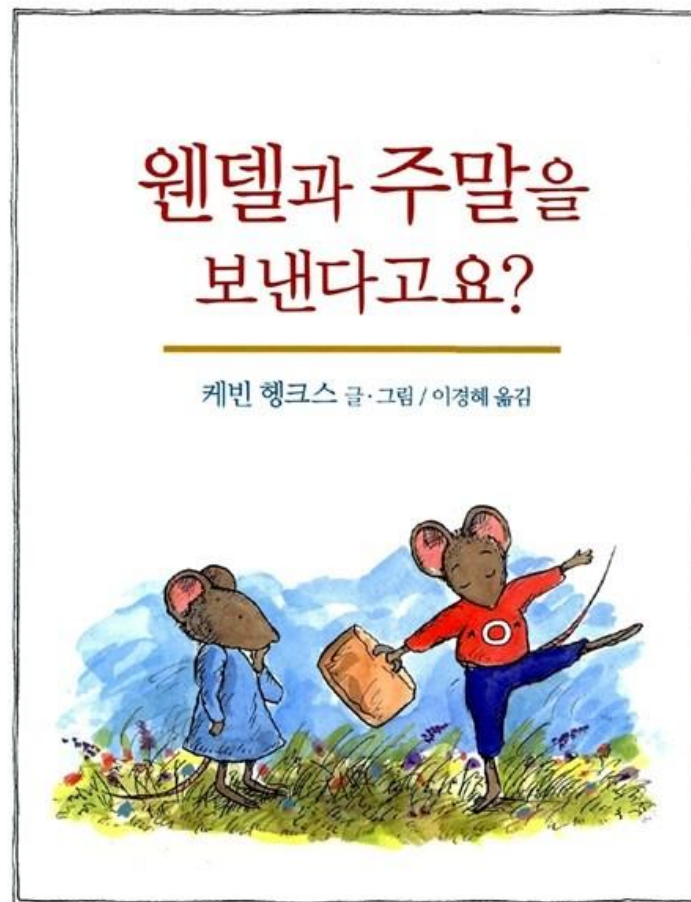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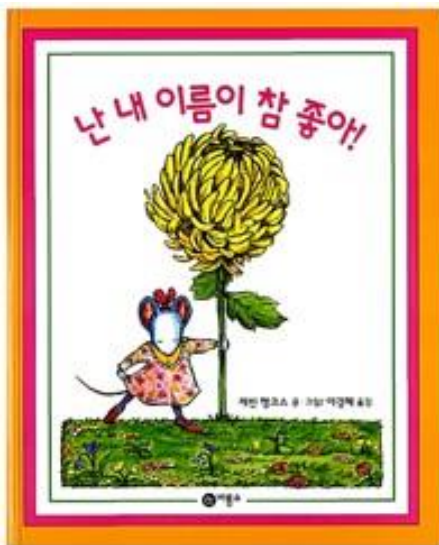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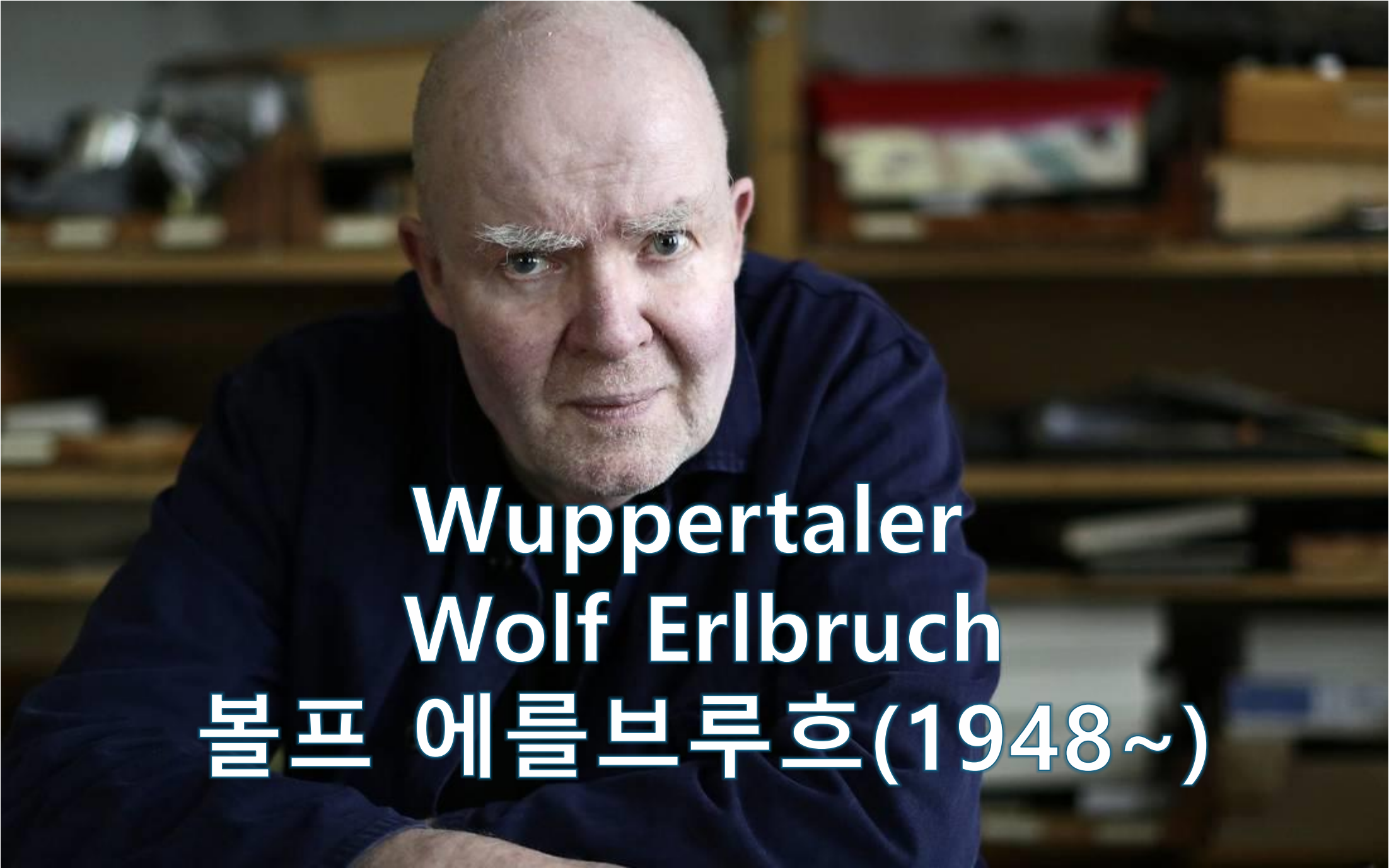
We measure time in minutes, and it is back to school, facts  
laid out in black and white. And, like a woman, childhood turns,  
too. And pretty soon, Barbara is grown up.



# 케빈 행크스 그림책이 줄 수 있는 안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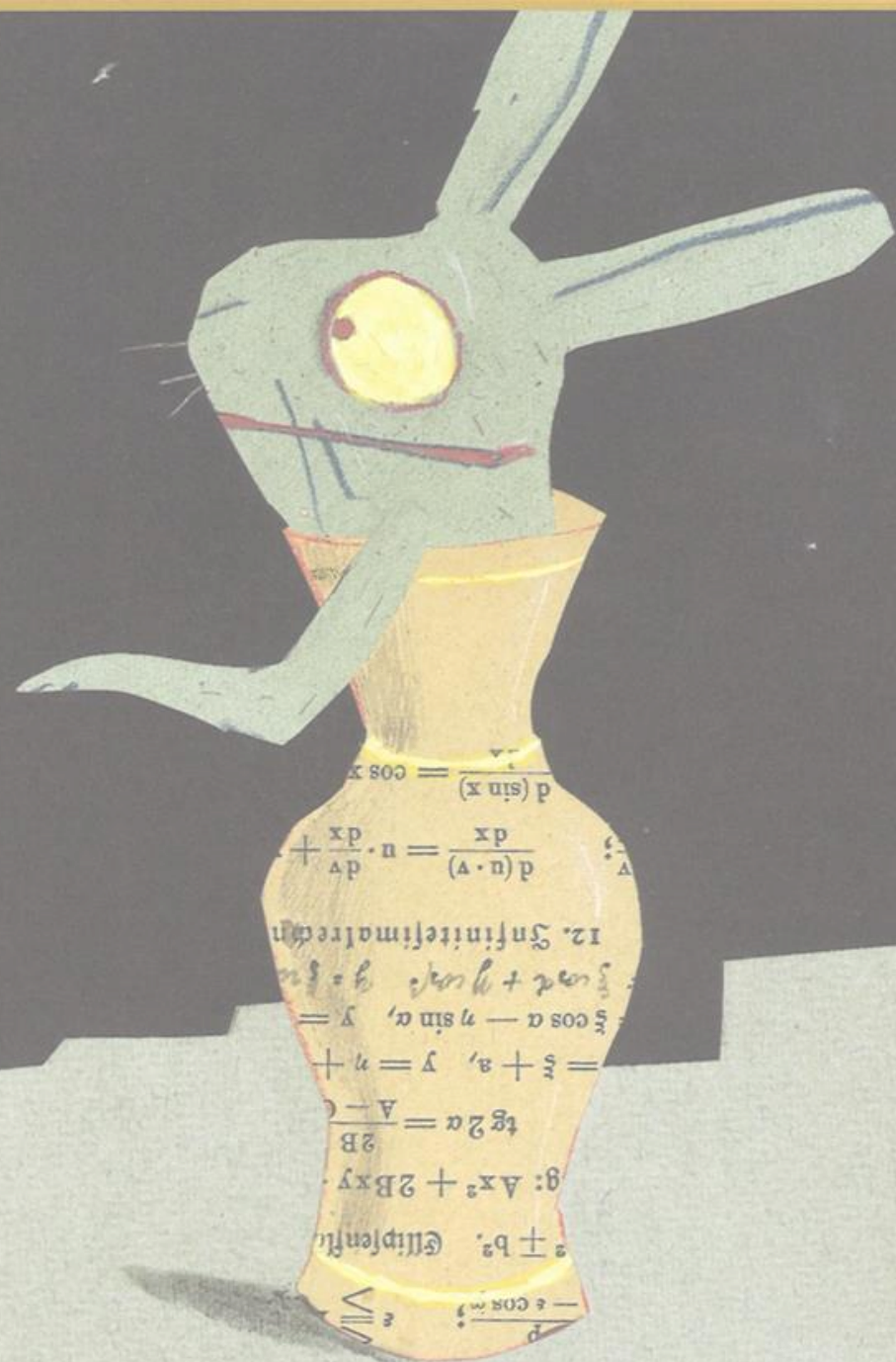


A portrait of Wolf Erlbruch, an older man with a balding head and light-colored eyes, wearing a dark blue shirt. He is looking directly at the camera with a serious expression. The background is a blurred workshop or office with shelves containing various items.

**Wuppertaler  
Wolf Erlbruch  
볼프 에를브루흐(1948~)**

## 모니터의 의미

## 수학 공식으로 만든 꽃병





# 날개 달린 미키마우스와 상품사회

FIETSEN  
STALLING  
102A

# 모자를 쓴 고릴라와 이주자

zum Glück auch. Alle deine Freunde schlafen,

und ich würde auch lieber weiterschlafen.



거대한 개가 지탱하고 있는 세계

# 서커스하는 앨리스에게 공을 건네 주는 폰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금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금기는 대부분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누가 내 머리에 똥 샀어’는 실제로 어린이들의 목소리로부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은 이 책의 목소리를 끝까지 거부했어요.

결국 어린이들이 이길 때까지.”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린이는 기이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대부분  
어린이가 스스로 훌륭하게 처리해낼 수 있습니다.”

밤=어둠=아버지  
수많은 장면들=색=어린이

오선지, 포장지, 지도, 회계 장부를 사용하는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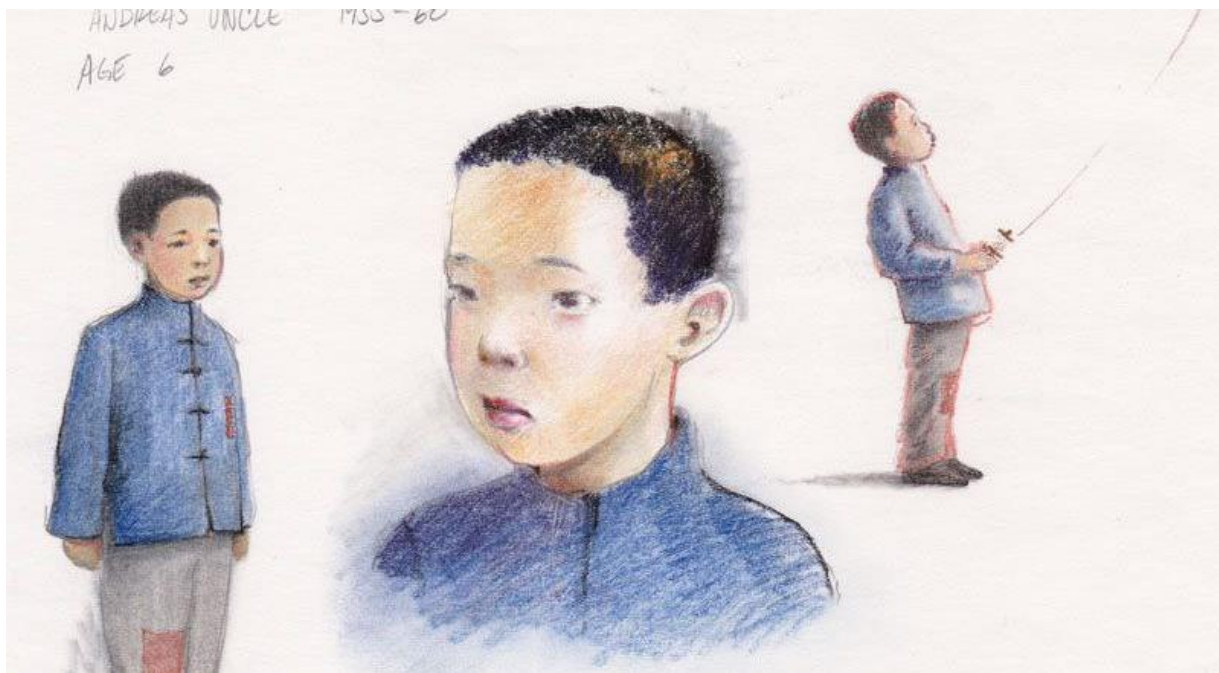
디자이너로서 세상이 조금 더 완벽한 라인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분노, 자부심, 슬픔, 기쁨과 같은 감정을 풍자적으로 과장합니다. 거대한 몸과 다른 물건 사이의 대조적인 배치를 좋아합니다.

르네상스부터 초현실주의까지 유럽의 회화 전통을 대담하게 다루면서도 항상 어린이를 옆두에 두었습니다. 우아한 시체(Cadavre exquis) 놀이처럼 우연에 의지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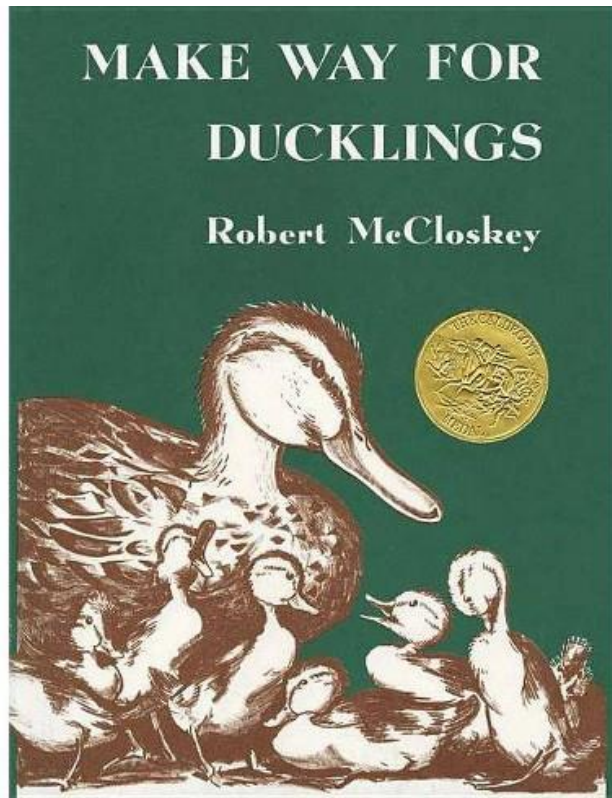
인본주의적 이상에 뿌리를 둔 유머와 따뜻함을 갖춘 그의 작품  
은 우리에게 우주의 규모를 알려줍니다.

그의 그림책은 어린이에게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가 궁금해할 수 있는 실존적 질문을 던집니다.



루드비히 베벌먼즈의 그림책 <Madeline's Rescue>은 1940년 명예상 수상작 마들린느와 같은 시리즈이다. 이 그림책은 마들린느라는 모험심 가득하고 전복적인 인물을 통해 어린이의 존재론에 혁신을 가져오고 현대적 어린이 주인공의 모델을 제시한 작품이다. 에펠탑과 센강의 풍경처럼 1900년대 초 중반 가장 화려한 대도시였던 파리의 풍물을 그림책 안에 적극적으로 들여와 마들린느와 친구들이 그 공간 안에서 활달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책이 당대의 현실과 밀착된 이미지를 담아낸 성공적인 예시이다.





로버트 맥클로스키의 그림책 <Make Way for Ducklings>(1942년 수상작)은 인간의 삶과 동물의 삶이 어떻게 교차되고 동행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작품이다. 보스턴시의 실제 거리를 배경으로 하였으며 영화적인 장면 연출이 돋보인다. 대공황과 세계대전으로 고통 속에 각박한 삶을 이겨내고 있던 독자들에게 그림책이 전하는 위로의 힘을 보여준 작품이기도 하다



로버트 맥클로스키의 그림책 <Make Way for Ducklings>(1942년 수상작)은 인간의 삶과 동물의 삶이 어떻게 교차되고 동행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작품이다. 보스턴시의 실제 거리를 배경으로 하였으며 영화적인 장면 연출이 돋보인다. 대공황과 세계대전으로 고통 속에 각박한 삶을 이겨내고 있던 독자들에게 그림책이 전하는 위로의 힘을 보여준 작품이기도 하다



제럴드 맥더머트의 그림책 < Arrow to the Sun>(1975년 수상작)은 뉴멕시코의 푸에블로 설화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이다. 주황과 노랑을 비롯해 뉴멕시코 지방에서 오래전부터 전래되어 온 색의 맥락을 활용하는 방식이 세련되고 절묘하며 칼데콧상 심사평에서 언급된 바처럼 “외피 아래에 감추어져 있는 진실을 꿰뚫어보는 샤먼”의 모습이 강렬하다. 그림책 중의 많은 작품은 전래된 옛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책 또한 설화의 힘을 현대적으로 재현해낸 걸작이라는 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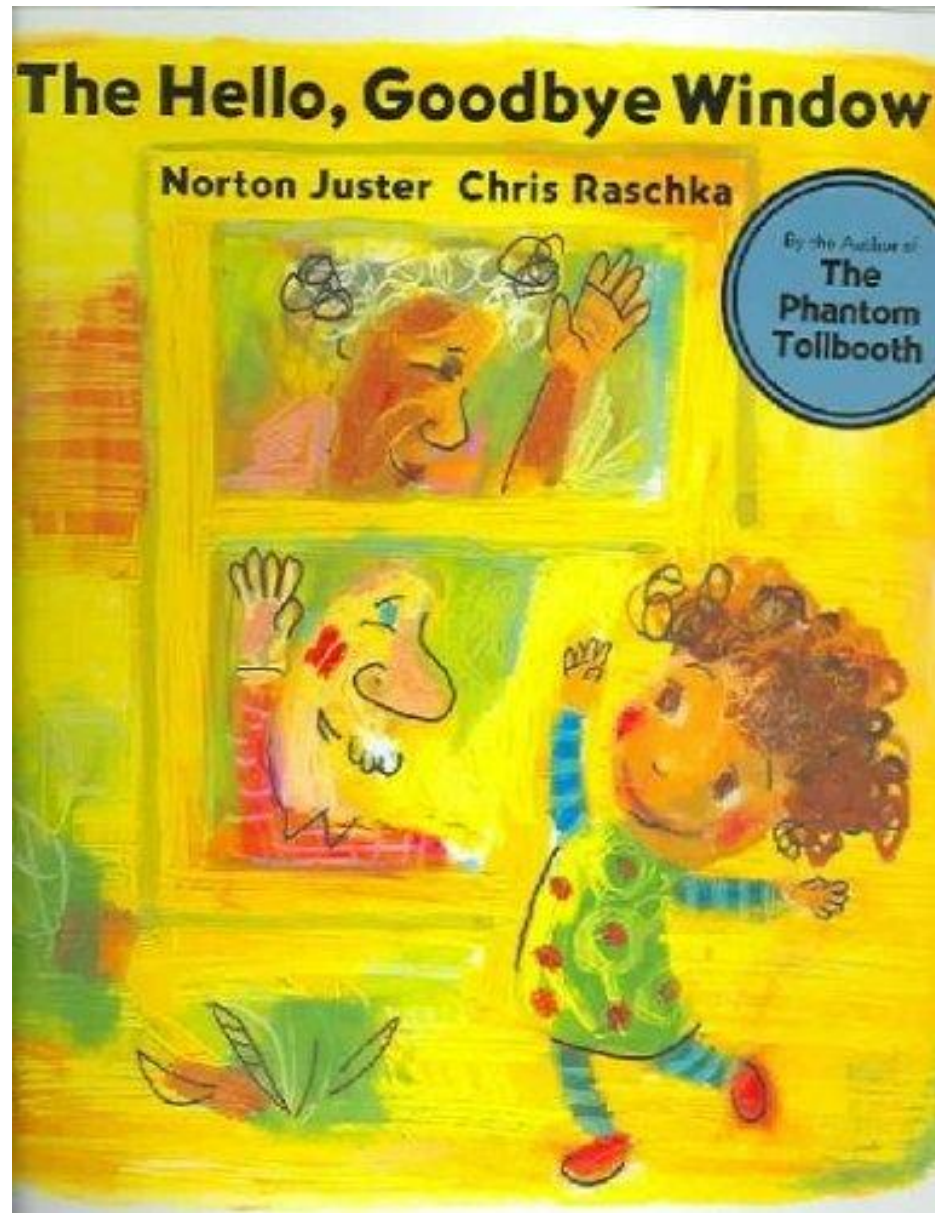
alamy

Image ID: 2B8K9HR  
www.alam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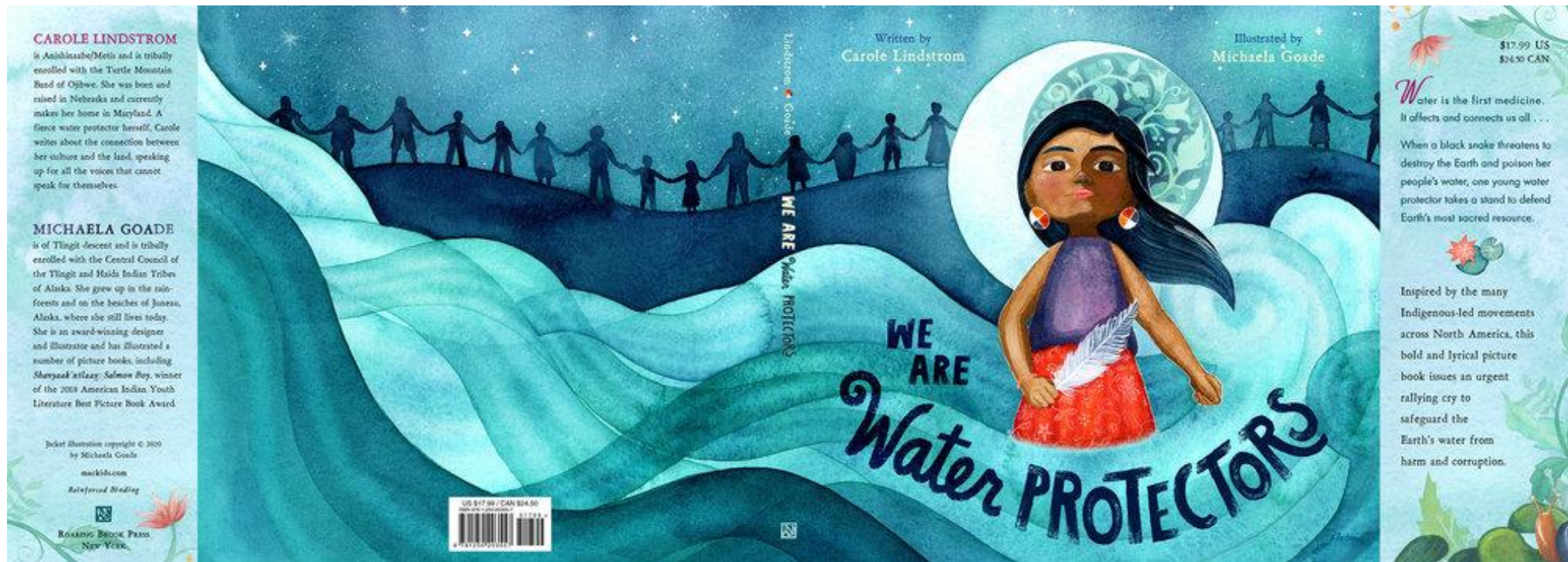
alamy

Image ID: M473D8  
www.alamy.com



노턴 저스터가 글을 쓰고 크리스 라슈카가 그림을 그린 <The Hello, Goodbye Window>(2006년 수상작)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사는 시골집을 방문한 어린이의 설레는 마음을 자유분방한 선과 풍성한 색, 다채로운 레이아웃으로 나타냈다. 권위를 내려놓고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 조부모와 어린이의 생생한 교감이 다정하게 그려진다.

캐롤 린드스트롬이 글을 쓰고 미카엘라 고드가 그림을 그린 <We Are Water Protectors>(2021년 수상작)는 팬데믹으로 위기에 직면하게 된 지구 공동체의 미래와 생태 환경의 보존에 대한 문제제기가 담긴 작품이다. 미국 중북부 노스다코타에서 실제로 벌어진 송유관 선로 개발계획과 관련된 작품이다. 이 그림책에서 말하는 '검은 뱀'은 송유관을 가리키는 것이면서 송유관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개발과 자연 파괴의 시도는 '검은 뱀'일 수 있다. 그리고 강한 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약한 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인종주의'와도 관련이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투명한 푸른 빛의 수채화로 그려내면서 동시에 그 아름다움을 공격하는 세력에 대한 저항의 의지를 선언하는 견고한 개성을 지닌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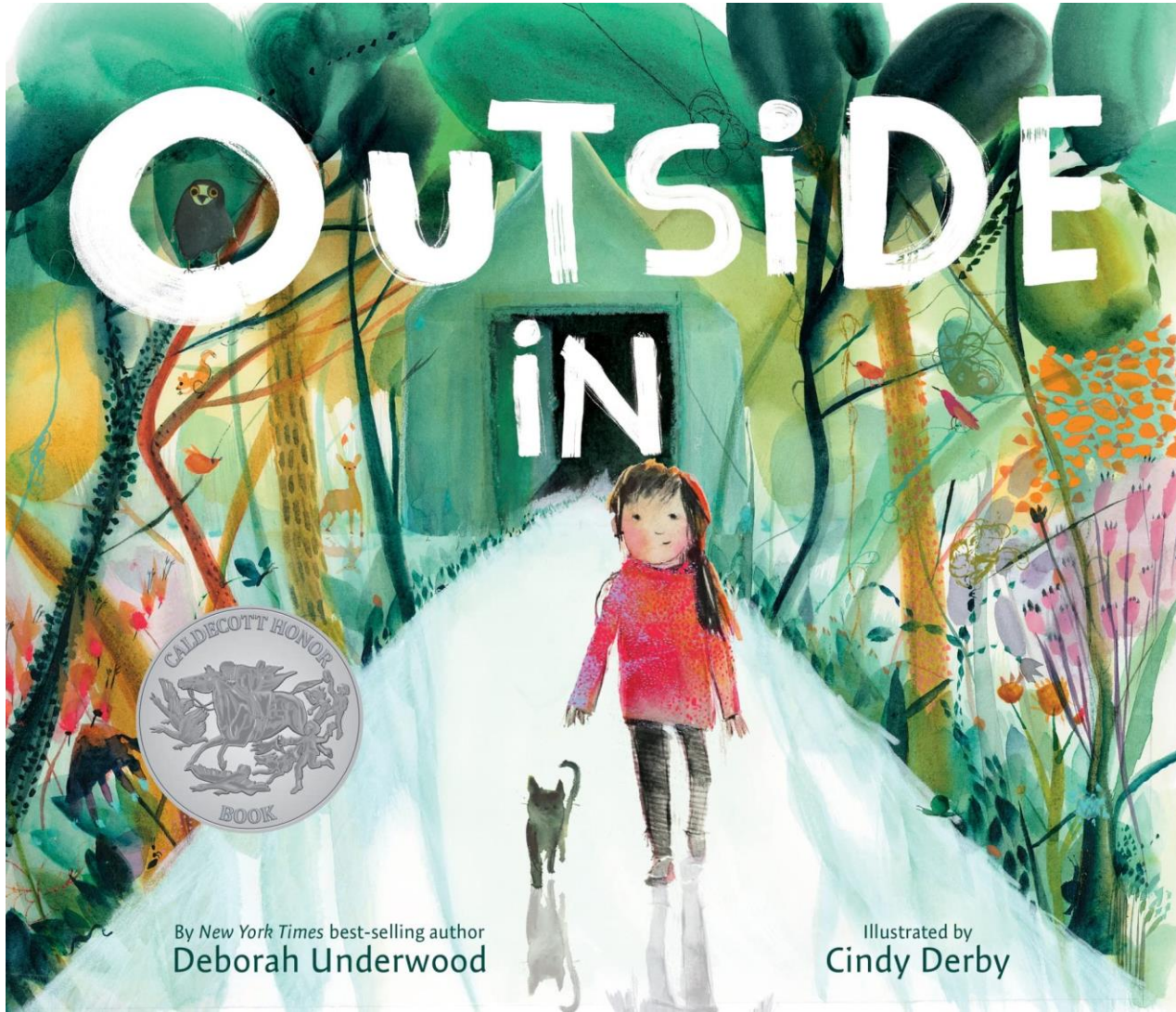


- 그림책에서 여성 어린이 주인공은 "스스로 자신을 위해 싸우지 못하는 존재, 날개 달린 존재, 땅에서 기어 다니는 존재, 네 발을 가진 존재, 두 발을 가진 존재, 풀과 나무, 강과 호수, 지구를 위해 싸운다."고 말한다.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싸움만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이 투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는 없다고 말한다. 선주민의 전통 신화에서 남성은 불을 지키고 여성은 물을 지키는 존재로 그려진다. 실제 송유관 매설 반대 투쟁에 나섰던 이들 중에는 여성이 많았으며 시위대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했다.





- 이 작품을 쓰고 그린 두 여성 작가는 모두 연방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아메리카 선주민이다. 작가 자신이 사라지는 문명의 후예로서, 절멸하는 것들의 수호자로 살아왔던 사람들이다. 이 그림책은 우리 모두에게 당신은 지구를 돌볼 책임이 있다고, 우리 자신의 다른 모습이기도 한 검은 뱀으로부터 지구를 지켜내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손에 달린 일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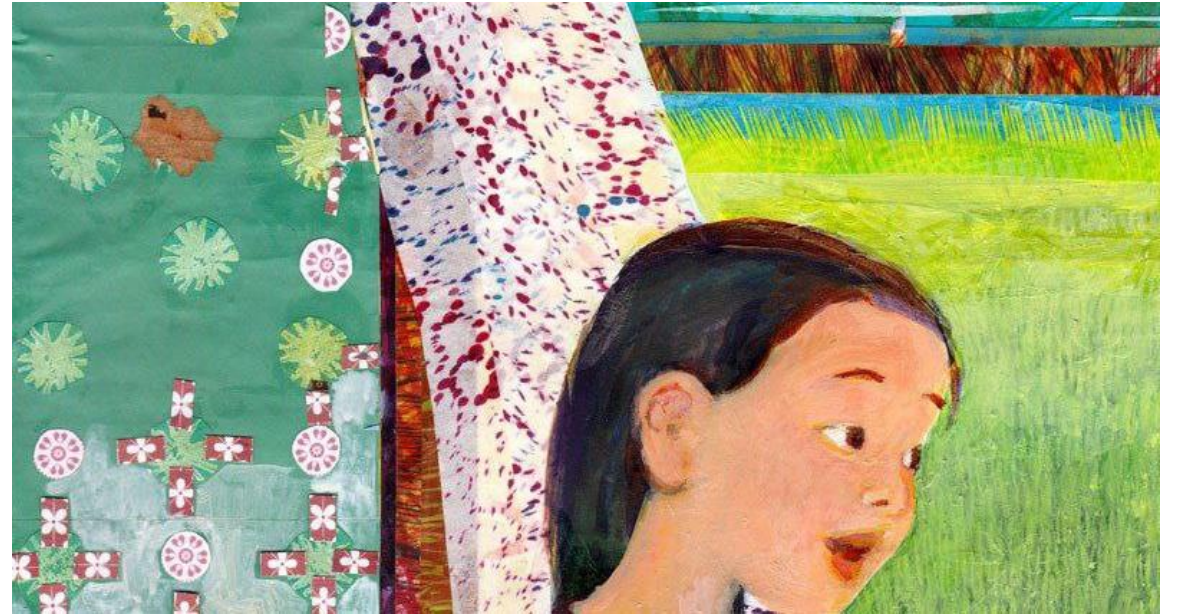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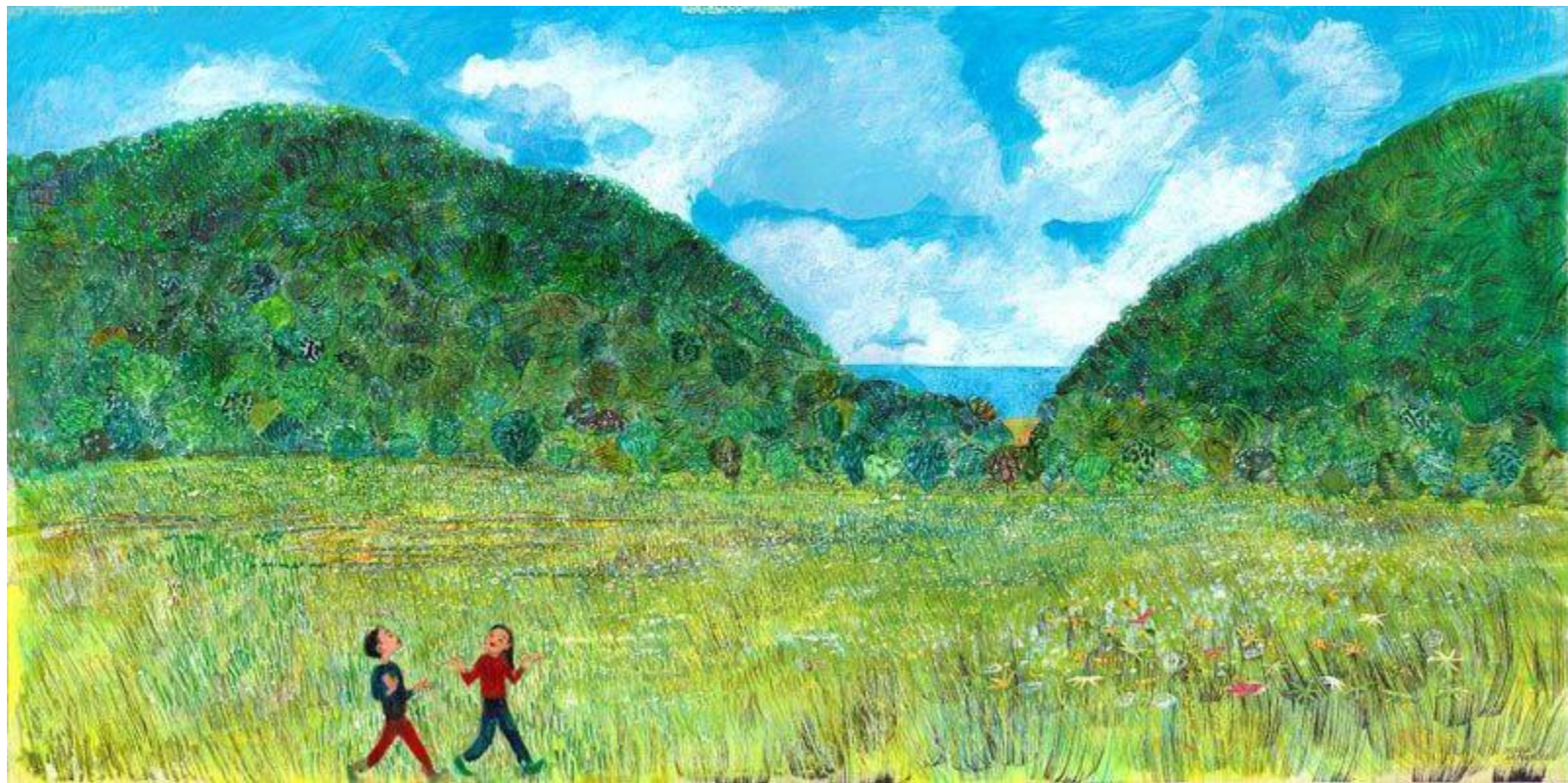
데보라 언더우드가 글을 쓰고 신디 데비가 그림을 그린 <Outside In>(2021년 명예상 수상작)도 팬데믹 이후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독자들에게 큰 여운을 남겨준 작품이다. 자연과 떨어져 고립된 인공적 공간에서 살아가는 고립된 삶에서 벗어나 자연 속으로 들어갈 것을 권하는 이야기다. 이 작품은 “우리가 준비되면 자연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들려주는 조용하고 심오한 그리고 위안이 되는 깨우침”이라는 서평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연과 인간의 거리를 지금보다 더 가깝게 좁힐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수채 물감, 연필심 가루, 말린 꽃, 잉크에 적신 실 등을 활용한 각양각색의 표현으로 자연이 우리 곁에 저절로 스며들 듯이 다가오는 장면을 그렸다. 그 어떤 작품도 우리가 자연의 일부이고 한때는 그들과 하나였다는 사실을, 회화를 통해 이만큼 납득 가능하게 보여주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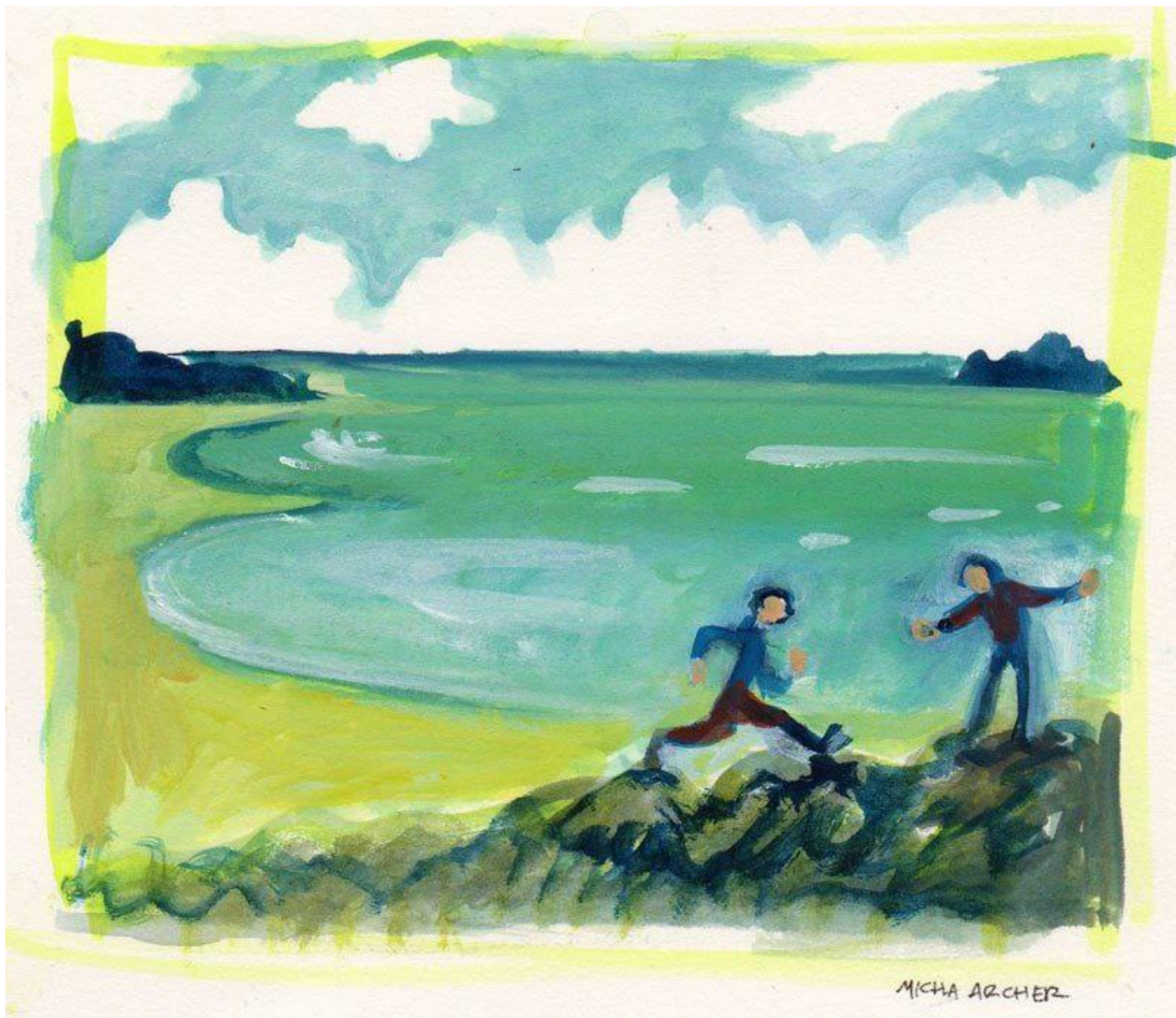
- 미카 아처의 그림책 <Wonder Walkers>(2022년 수상작)는 여러모로 위축된 어린이의 호기심을 되살리는 서사의 전개와 몸의 움직임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에너지 넘치는 콜라주 이미지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작품 속 어린이 인물들의 드러누운 자세, 옆드린 모습, 걷고 뛰는 동작 등이 더없이 부드럽고 유연하다. 그들의 몸은 적절한 이완과 역동을 반복한다. 쉬는 시간이면 전신이 부드럽게 소파나 침대에 밀착되어 있다. 다리 위에 서서 물안개 낀 강물을 내려다볼 때는 어깨에서부터 가벼운 떨림이 보인다. “동굴도 입이 있을까?” 살펴보러 기어 들어가는 어린이의 턱에서는 강력한 도전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반면 뒤에서 이를 지켜보는 어린이는 본래 겁이 많지만 자신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바짝 치켜든 그의 발뒤꿈치에서 알게 된다.



책 속의 어린이가 던지는 질문은 간단해도 어린이의 마음 속 세계는 간단하지 않다. 중첩된 이미지들은 그 복잡성을 상징한다. 여자 어린이와 남자 어린이는 빨강고 파란 옷을 입었는데 상의와 하의가 교차되어 둘이 한 팀 같으면서도 독립적 개성을 드러낸다. 옷의 무늬는 바람의 무늬이기도 하고 빗줄기와 나무둥치의 무늬이기도 하다. 우리는 서로 하나라는 것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콜라주의 힘이다. 볼수록 해방감이 느껴지는 풍요로운 그림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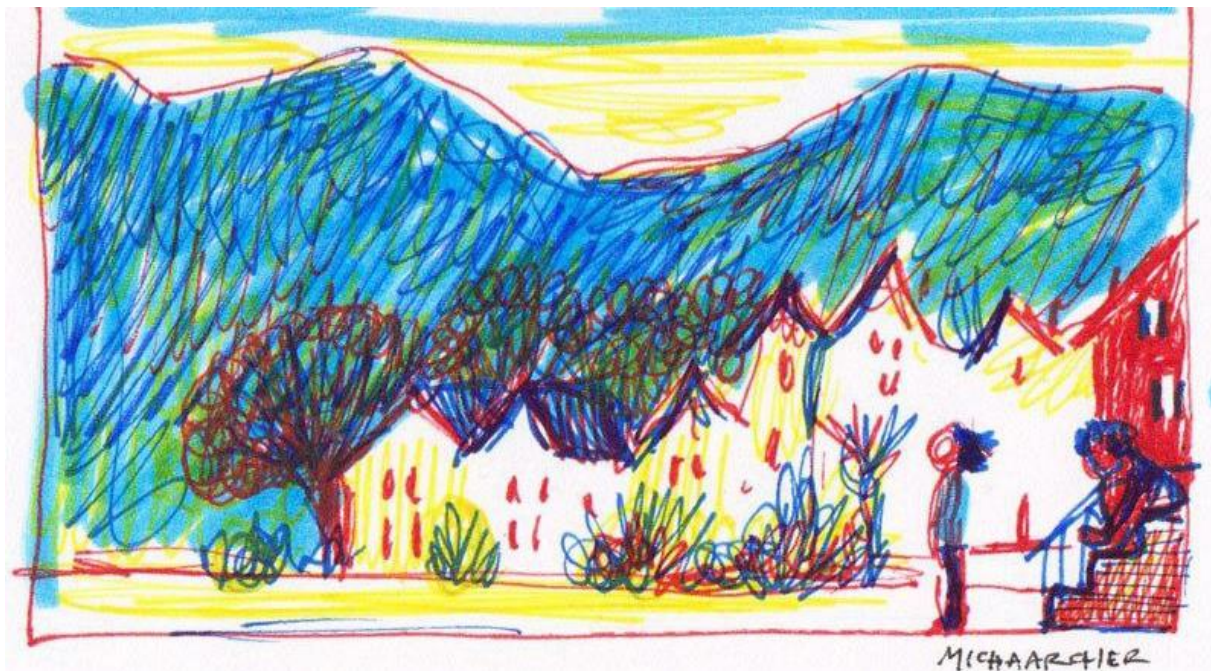






MICHA ARCHER







감사합니다